metro

메트로 2014년 5월 12일 월요일 제2971호 www.metrobusan.co.kr

이건희 회장 응급 심장시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 증세를 일으켜 병원에서 응급 심장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11일 오전 이 회장이 입원한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내원객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관련기사 12> /연합뉴스

카드사 고객신뢰 되찾기 '심혈'

17일 업무정지 풀려

신상품 출시·사은행사 등 공격마케팅 계획
정보보호 보안기능 전담팀 구성에 최우선

개인정보 유출로 된서리를 맞은 KB국민카드·롯데카드·NH농협카드가 오는 17일 영업 재개를 앞두고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카드 3사가 제재를 받은 기간은 3개월이지만 지난 1월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4개월간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17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에 내려진 일부 업무정지를 오는 17일 0시부터 해제한다. 17일이 주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상 영업은 사실상 19일부터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카드사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회원의 신규 모집과 카드 발급을 다시 할 수 있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리볼빙 등 신용 대출과 카드슈랑스, 통신 판매, 여행 알선 등 부수 업무도 신규로 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들 카드 3사가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제재로 3개월간 일부 업무정지를 받고서 이 기간에 별도 위반 행위가 없어 제재를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카드 3사는 3개월간 업무 정지로 막대한 손실을 봤다. 3개월간의 이자 수익, 수수료 수익 등을 고려하면 국민카드는 500여억원, 농협카드는 400여억원, 롯데카드는 300여억원의 손해를 본 셈이다. 이 기간에 탈퇴 또는 해지를 통해 카드 3사를 떠난 고객만 300만명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이들 카드사의 올해 순이익이 2500여억원을 기록해 2013년 4100여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줄 것으로 분석했다.

◆ 카드3사, 금융사고 재발 방지 노력

이들 카드사는 그동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영업력 회복을 위한 신규상품 출시와 사은행사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KB국민카드는 기존 상품인 혹(훅)앤쿡용카드의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고객의 선호에 따른 체크카드 신상품 등을 준비 중이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아직 날짜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현재 기존 제품의 진용을 강화한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고객 신뢰 회복을 중심으로 최원 사은 행사 등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객정보 보호 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쇄신안도 연구 중에 있다"며 "정보보호와 보안기능 전담팀 구성부터 '케어링 & 스마트 2014' 운동을 통한 내부 쇄신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B국민카드는 또 지난 8일부터 지상파TV와 케이블TV·극장 등을 통해 '마음을 씁니다'를 주제로 새로운 영상광고를 선보였다. 이 광고는 카드상품을 소개하는 형식적인 광고가 아닌 소비자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KB국민카드는 고객정보 보호 대책 수립을 위한 특별팀(TF)을 구성해 신뢰회복에 나설 방침이다.

롯데카드도 금융보안통합 솔루션을 도입해 보안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영업재개를 대비해 고객 신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보안강화와 업무 프로세스 재정비,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카드 역시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바탕으로 신상품과 이벤트 등을 준비하고 있다. 농협카드 관계자는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조건 없이 할인받을 수 있는 범용신용카드와 해외 직구 전용 체크카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내부통제협의회를 신설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사고예방을 방지하는 한편 신규·기존 고객을 위한 이벤트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민지 박미란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는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팽목항 찾은 이스라엘 심리치료사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26일째인 11일 오전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 심리상담 지원센터에 이스라엘 심리치료 민간구호기관인 이스라에이드의 전문가들이 찾아 실종자 가족 등을 위한 심리 상담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

고위공직 인사 '올 스톱'

세월호 여파 부처 국장급 공석… 줄사퇴 해수부 뒤숭숭

박근혜 정부의 신중한 인사 패턴에 세월호 참사까지 겹치면서 주요 정부 부처의 고위 공무원 인사가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 부처의 실국장급 자리는 3~6개월 이상 공석 상태가 이어지면서 업무 공백이 커지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은 3~4월로 예정됐던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인사가 줄줄이 지연되면서 10개 이상의 고위공무원 보직이 공석이거나 이미 사표가 제출된 상태다.

3월 중순께 과장급 인사를 단행한 기재부는 이어서 바로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인사를 하려 했지만 5월 중순인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세월호 등 사고 수습 관련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 행정예산국장 자리는 2월 이후 공석 상태다. 행정예산국장과 협동조합정책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등 국장급 3명이 조직 인사에 숨통을 틔워주고자 교육을 떠난 이후 인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급 1~2명을 산하 공공기관장 또는 여타 부처로 보직 이동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타 부처에서는 부이사관급으로서 국장 보직을 가진 행정고시 35회가, 기재부에서는 서기관급으로 같은 과장 보직을 몇번째 맡는 경우가 속출하는 등 적체도 심하다. 관세정책관 보직은 지난해 11월 이후 아직 6개월째 공석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기획조정실장, 해양정책실장, 수산정책실장과 중앙해양심판원장, 국립 수산과학원장 등 1급 5명이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터져 더 뒤숭숭한 분위기다.

/장신홍기자 mikim@metroseoul.co.kr

로고송·유세차 사라졌다

15~16일 지방선거 후보등록… 변수 작용

여야가 이번 주 6·4지방선거 공식 후보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간다. 후보 등록은 15~16일 이틀간 실시된다.

세월호 참사 대책 논의를 위한 5월 임시국회 가동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선거전과 함께 세월호 국회 가동시 가동되는 정도 이번 선거의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적인 선거기간은 22일부터 시작되지만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 가운데 마지막으로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12일)되는 다음날인 13일께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미 지난달 11일 '무지개 선대위'를 출범시켰다.

여야는 선거모드로 돌아섰지만 세월호 참사라는 국민적 비극 속에서 전에 없이 조용하게 진행되는 분위기다. '뽕짝' 같은 흥겨운 로고송이나 단체 율동 등 전통적 선거유세는 꿈도 못 꾼다. 출퇴근 거리 인사도 주변 눈치를 보면서 하는 실정이다.

일반화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국민 정서가 극도로 예민한 때에 온라인에서의 한 번 실수는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종훈기자

새 원내대표 '웃음' 상견례 여야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5월 임시국회 소집 등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여야 중진의원 물밑 경쟁

19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었던 18명의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29일로 종료됨에 따라 여의도에는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노리는 여야 중진 의원들의 '불꽃경쟁'이 이미 시작됐다. 후반기에도 새누리당이 10개, 새정치민주연합이 8개의 상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새누리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9일까지 제출받은 소속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 신청 결과를 토대로 이달 안으로 상임위원장 선정을 끝낼 방침이다. 이완구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맡는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상임위가 조정 대상이다.

정무위원장을 놓고 김재경 의원과 옛 경제기획원 출신의 정우택 최고위원이 양보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기획재정위원장으로는 경제통인 정희수 의원이 유력하게 거명된다. /김민준기자

'유병언 회생 사례' 다신 없도록

법정관리 인수자 선정때 옛 사주 관계자 배제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회생절차 제도를 악용해 사실상 빚을 탕감받고 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면서 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기업의 인수자를 선정할 때 옛 사주의 관계자를 배제하는 안이 추진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파산부 전체 법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인회생제도 남용·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선안은 매각 주간사가 인수합병(M&A)이 추진되는 기업의 인수 희망자에게 옛 사주와의 연관성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인수 희망자에 대한 검증을 게을리하는 매각 주간사에는 불이익을 주는 안도 마련했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에는 옛 사주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 정명위원전문관리위원(CRO),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할 수 있다.

기존 경영자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때는 옛 사주와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도록 의무화한다.

법원 관계자는 "개선안을 바탕으로 조만간 회생실무준칙을 개정하고, 이를 전국 법원에서 일제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윤희기자

친형 유병일씨 검찰 소환

직계 가족 첫… 전양자씨도 조사받고 귀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1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친형 병일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유 전 회장 일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병일씨는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고문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병일씨가 청해진해운 경영에도 개입하고, 세월호 증축 과정에서 조언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유 전 회장 측근이자 국제영상 대표인 탤런트 전양자(72)씨를 소환해 10시간 가량 강도 높게 조사한 뒤 이날 새벽 귀가조치 했다. 이어 계열사 온지구 대표인 계규정(68) 전 전북 행정부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계 전 부지사는 2008년부터 온지구 대표를 맡아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유 전 회장 일가에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윤다혜기자

검찰 조사 마친 탤런트 전양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자 국제영상 대표인 탤런트 전양자가 11일 오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피조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유병언 일가 수십억 연봉

세모 계열사, 장남에 매달 1천만원대 월급…배당금도 챙겨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44)씨가 지분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계열사로부터 상당 기간 100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월급과 고문료를 각각 받은 유 전 회장과 형 병일씨 등을 포함해 일가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월급 등을 모두 더하면 수십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최근 김영정 세모신협 이사장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중 하나인 세모가 대균씨에게 지급한 급여 대장을 확보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 급여 대장에는 대균씨의 이름과 함께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으며 대균씨 외 다른 회사 관계자들의 월급 지급 내역도 포함됐다.

대균씨는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19.44%)와 ㈜다판다(32%), 트라이곤코리아(20%), 한국제약(12%) 등 4개 관계사의 대주주다. 2011년 7월에는 관계사 중 하나인 ㈜소쿠리상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면서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세모는 대균씨가 대주주인 다판다가 가장 많은 지분(31%)을 갖고 있지만 대균씨가 경영에 직접 참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유 전 회장의 형 병일씨도 고문료 명목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250만원을 받았으며 차남 혁기(42)씨도 천해지 등 계열사로부터 급여와 자문료 명목으로 수년간 10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세모그룹이 지주사 아이원아이홀딩스를 중심축으로 2008년 부활하면서 계열사 중 최소 3곳이 유 전 회장 일가와 최측근들에게 2008년 한 해에만 배당금 11억원 정도를 지급했다. /조현정기자 ml0an@metroseoul.co.kr

계단까지 꽉 찬 입시설명회 11일 오후 서울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사설교육기관의 대학입시 설명회에 출구로 통하는 계단까지 학부모와 학생들로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해경, 세월호 정보공개 '제로'

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단 1건의 결재문서도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11일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4월 한 달간 89건의 결재문서를 공개했지만 당직자 명단, 인사, 홍보 물품 제작처럼 국민 관심 또는 생활과 동떨어진 내용이 대부분이다.

다른 중앙행정기관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4월 한 달간 중앙행정기관, 중앙위원회, 광역 시·도가 공개한 원문 정보는 모두 9693건.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491건), 안전행정부(396건), 보건복지부(354건) 문서이고 내용도 직원 출장·휴가 신청, 인사, 간담회 개최 보고서가 주류다. /김민준기자

"브니엘국제예고 학부모 시위 중단" 촉구

브니엘고 등 4개 학교 학부모대표 성명…고3 수험생들도 발끈

부산 브니엘국제예술고의 '국제반' 운영과 관련, 1학년생 학부모들의 시위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브니엘고와 브니엘여고, 브니엘국제예술중 고교 등 4개 학교 학부모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 4개 학부모 대표단은 성명서를 통해 "브니엘국제예고 1학년 시위 학부모들은 국제반 해체와 새로운 반 편성 등이 학교측이 수용한 만큼 더 이상 학생들의 학습에 피해를 주는 모든 행동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브니엘국제예고 3학년 수험생들은 "학교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1학년생 일부 학부모들 때문에 학습 분위기가 엉망이며 수험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학부모 대표단은 "일부 학부모들의 시위가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유발해 신체질환을 앓을 정도로 그 피해가 크다"면서 "학교 안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들 4개 학교 학부모 대표단은 또 시위 학부모들에 대해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각종 SNS 인터넷 매체 등에 올린, 학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들을 즉각 삭제하고 학교 발전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 일부 학부모들의 불법 시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들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시위가 장기화 되자 2 3학년 학생들까지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특히 곧 대입 수시시험을 치러야 할 3학년 학생들의 경우 자칫 학교 이미지 실추로 그 피해를 입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학생들은 SNS 등을 통해 "우리도 재학생"이라며 "학교와 시위로 학습분위기를 해치지 말아 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이렇게 좋은 학교로 만들어 버리면 졸업을 해도 손가락질 받고 눈치 보며 살아야 한다"며 "1학년 일부 부모들의 이기주의로 아이들까지 욕을 먹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이렇다.

브니엘국제예술고는 최근 예술 전공 학생들이 급감하는데다 서울의 주요 예능계열 대학들이 입시 전형에서 실기 비중을 줄이고 학업성적 위주로 바뀜에 따라 올해 학교 이름을 '브니엘예술고'에서 '브니엘국제예술고'로 바꾸고, 학업 비중을 중시하는 쪽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용하면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올해 미술 전공의 30%를 성적우수자 전형으로 별도 선발해 실기 대신에 학업위주로 학사를 운영하던 중 1학년 일부학부모들이 국제반 운영에 반발하면서 보름 넘게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의 시위에 영향을 받은 1학년 학생 140여 명이 중간고사 거부 사태를 빚기도 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예술학교에서 국 영 수 심화학습을 하는 것은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브니엘국제예술고 측도 이를 받아들여 국제반을 해체하고 새로 반 편성을 함으로써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일부 시위학부모들이 다시 '국제반 학생들을 모두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브니엘국제예술고 측은 "최초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한 국제반은 해체하고 학사일정을 바로 잡았다"면서 "국제반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것을 요구하거나 중간고사 미반영 등 무리한 요구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긋고 학부모들이 학교 정상화를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하균기자 jhk@metroseoul.co.kr

인제대 '산학협력 선도대학' 뽑혔다

3년간 45억 지원받아

인제대학교는 최근 교육부가 주관하는 '2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제대는 대학의 역량 및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해 의생명헬스케어, 수송기계IT, 나노융합소재의 3개 특성화 분야로 동남권 현장밀착형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대학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매년 45억원 내외의 국고 지원을 받게 된다.

인제대는 "산학일체를 통한 Hidden Champion(강소기업)으로의 동반성장"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자립형 산학일체 체제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선도형 대학 체제혁신, 특성화 분야에의 대학 역량 집중, 그리고 700여개의 산학협력가족회사(INFACO)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인제대는 맞춤형 기업 지원전략 개발을 위해 웹기반 한국기업 지리정보체계를 지제 개발에 활용하는 등 인제대 산학협력가족회사인 INFACO기업을 대상으로 한 최적의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확대 시행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인제대 이원로 총장은 "지역 사회와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창조적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지역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하균기자

부산항 대교 또 하나의 '혈세 먹는 하마' 우려 제기 거제~부산~울산을 잇는 남해안 소(小) 물류 동맥의 핵심 구간인 부산항대교(부산 남구 감만동~영도구 청학동·길이 3.3㎞)가 연결 도로의 공사 지연으로 '또 하나의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아쿠아리움 무료입장 혜택

부산아쿠아리움은 스승의 날을 맞아 '담임 교사 자랑하기 글짓기 대회' 및 무료 입장 등 다양한 행사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담임 선생님 자랑하기 글짓기 대회는 전국의 초·중·고교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방법은 자랑하고 싶은 담임 교사를 주제로 쓴 글을 오는 14일까지 부산아쿠아리움 홈페이지(www.busanaquarium.com)의 이벤트 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응모하면 된다.

부산아쿠아리움은 초등부분과 중 고등부문에서 각 1명씩 총 2명의 최우수상을 선정해 상장과 기념 티셔츠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 수상자의 반 전원에게 단체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오는 15일 스승의 날에는 교사 본인에 한해 부산아쿠아리움 무료 입장 가능하며, 동반 3명까지 1만3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문의(051)740-1700

저상버스 70대 도입

부산시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 약자를 위해 올해 저상버스 70대를 추가로 도입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저상버스가 추가 보급되면 부산 시내를 달리는 저상버스는 모두 3%대로 늘어난다.

부산시는 또 장애인 교통수단인 '두리발'을 11대 늘리고, 이 가운데 2대를 야간에 운행하기로 했다. 두리발도 117대에서 128대로 늘어난다.

부산시는 장애인 콜택시 1천290대 가운데 낡은 10대를 올해 안에 교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해운대에 수익형 레지던스호텔 신축 '붐'

전국 최대의 휴양지인 부산 해운대에 수익형 레지던스 호텔이 잇따라 들어선다.

동원건설산업과 유탄비시 라뮤에트는 해운대구 우동 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 인근에 수익형 레지던스 호텔 및 상가 '해운대 라뮤에트'를 내달 초에 분양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운대 라뮤에트는 지상 42층(높이 157m)으로 장산, 해운대해수욕장, 달맞이 길 등을 조망할 수 있다.

지상 6층까지 상업시설에는 카페, 패밀리 레스토랑,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이 들어선다.

지상 7층부터 42층까지는 레지던스 호텔 477실이 조성된다.

해운대 라뮤에트는 지하철 해운대역과 바로 연결되는 역세권으로 해운대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 비즈니스를 위한 서비스와 휴식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

해운대에서 가장 높은 101층 규모로 지어지는 해운대 관광리조트 '엘시티'에도 561실 규모의 레지던스 호텔이 들어선다.

이 리조트는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레지던스 호텔 전체를 중국인 투자자들에게 분양할 예정이다.

대다수 객실 내부 설계를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변경, 부산시 승인까지 마쳤다.

현관에 들어서면 웅장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전실을 확장했고, 대리석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중국 전통미를 한껏 살렸다.

해운대와 인접한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에 조성되는 랜드마크 호텔과 프라이빗 콘도에도 최고급 레지던스 호텔이 들어선다.

해운대관광리조트 엘시티 조감도

353㎡크기의 펜트하우스와 프라이빗 레지던스 호텔로 구성되며 테라스에 프라이빗 풀을 배치해 바다의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처럼 해운대를 중심으로 수익형 레지던스 호텔 건축이 잇따르는 것은 수익형 부동산의 대명사였던 오피스텔의 수익률이 최근 하락한 때문이다. /연합뉴스

세계 방송 콘텐츠 한자리

BCM, 벡스코서 15일 개막…로봇 미래 체험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부산콘텐츠마켓조직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벡스코에서 열리는 '부산콘텐츠마켓(BCM)2014' 행사 기간 중 전문가·학생·시민을 위한 각종 세미나와 다양한 체험의 장을 제공한다.

먼저 15일에는 'UHDTV 및 모바일광폭 세미나'가 벡스코 제1전시장 회의실 214호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방송영상 관계자와 일반인·대학생을 대상으로 열린다.

'UHDTV 및 모바일광폭 세미나'에서는 스마트TV, UHDTV 방송영상 및 콘텐츠 생태계 트렌드를 이해하고 콘텐츠산업과의 상생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글디어 모바일태트 위크의 투자와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6일에는 '아시아 차세대 TV콘텐츠포럼 세미나'가 벡스코 회의실 211호에서 오후 2시부터 세계 각국 방송사, 제작사, 기획사 관계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열린다.

'아시아 차세대 TV콘텐츠포럼 세미나'는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차세대 TV콘텐츠의 국가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세미나는 드라마, 애니메이션, 국제 저작권 발전과제의 3부로 나눠 진행된다. 이번 포럼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공동 제작 및 유통으로 아시아 미디어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산콘텐츠마켓은 세계 각국 제작사 간의 방송 제작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지속적으로 교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부산콘텐츠마켓 2014 'BCM 플라자'에서는 올댓티비존, 로봇 미래 체험존, 키즈랜드, 캐릭터 애니메이션존, 상설 이벤트 등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올댓티비존에서는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갑격시대>의 '상하이 회관' 세트 재현과 <개그콘서트>의 인기 프로그램인 '황해' 등 엔터테인먼트 등의 세트와 각종 소품 등을 전시한다.

로봇 미래 체험존에서는 2012년 여수 엑스포 최고 인기 전시 프로그램이었던 로봇관을 재구성해 방송 캐릭터와의 결합으로 향후 방송 콘텐츠의 주역이 될 로봇존을 구현한다. 홀로그램 영상과 터치스크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캐릭터 애니메이션존과 키즈랜드는 교육적·체험적 요소를 결합한 '에듀테인먼트'란 부제로 마련됐다. 키즈랜드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돼 있다.

/정혁교기자 ihk@metroseoul.co.kr

6·4지방선거 이색 후보자 '눈길'

영화 '변호인' 돼지국밥집 아들 송병곤씨 도전

6·4 지방선거에 나서는 부산지역 이색 출마자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변호인'의 돼지국밥집 아들 '진우' 역의 실제 인물인 송병곤(사진) 변무법인 부산 사무장의 출마이다.

그는 부산 시의원선거 서구1선거구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나선다.

그는 출마의 변에서 "부산의 20년 새누리당 독점의 폐해와 권력 카르텔을 끊는데 작으나마 일조하고 영화 '변호인'이 너무나 뜨거운 사랑을 받아 이에 보답하는 차원도 있다"고 말했다.

사상구청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황호선 부경대 교수도 눈길을 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 후보경선이 남아있지만 문재인 의원의 오랜 친구이자 국회의원급 인사로 평가받는 그가 경선에 나선 것부터 화제를 낳고 있다.

그는 문 의원과 경남중·고 동기로 경남고 학생회장과 서울대 교양학부 학생회장을 지냈다.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엔 부산경실련 대표, (사)시민사회연구원장, 대통령자문위원, 전국지역혁신연구회장, 문재인 대선캠프 부산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을 지내 경력도 화려하다.

그가 만일 경선을 통과하면 새누리당 송숙희 후보와 맞설 수 있는 후보로 손색이 없다는 게 당내 의견이다.

시의원 선거 사하구 2선거구의 새누리당 신현무 후보는 부산MBC 기자 출신의 언론인이다.

시의원 선거 해운대3 선거구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나선 김근수 후보도 이채롭다.

그는 부산MBC 인기 프로그램 '좌충우돌 두 남자의 만국 유람기'의 주인공이다.

사하구 1선거구 새누리당 공천자인 최영진 사하배드민턴협회 회장은 초대 시의원을 지낸 최정석 전 부산공동어시장 사장의 장남이다. /연합뉴스

중구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부산 중구(구청장 김은숙)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어동복지회를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한국어교육을 실시한다.

한국어교육은 다문화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인 의사소통의 부재를 해결키 위해 마련됐다. 한국어 정규과정(1~4단계)과 중도입국자녀반, 특별반(자격증대비반)에 매주 화·목요일(2시간씩)마다 열린다.

수강료와 교재비는 전액 무료이다. 문의: (070) 8789-0342

경남정보대학교 총장 추만석(는 지난 ○일 오후 교내 드림시 드림홀에서 ○○여 명의 ○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메이크업 아티스트 박태윤 씨를 초청, '2014년 S/S메이크업 트렌드 특강'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남정보대 제공

안철수 새정치연합 부산 명예 상임선대위원장 맡아 새정치민주연합
부산 명예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공동대표(오른쪽)가 11일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와 손을 잡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창업, 참살이실습터가 도와드려요

부산과기대 국비교육생 모집

부산과학기술대학교는 12일부터 부산시 북구청과 공동으로 '참살이 실습터사업' 국비무료교육생을 모집한다.

중소기업청이 주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관리하는 참살이 실습터 사업은 와인소믈리에, 복지건강운동전문가, 네일아티스트 등 참살이(웰빙) 업종의 전문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전국 10개 사업단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부산과기대는 웰빙발효식품비즈니스과정 등 총 1억 7000만원을 지원받아 교육을 운영한다.

부산과기대는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해 부산 북구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웰빙발효식품비즈니스과정 30명, 네일아티스트 25명 등 총 5개 과정 130명의 교육생을 공동으로 모집한다.

교육은 각 분야별 교수와 전문강사들이 진행하며 현장실습, 취업알선, 창업자문 등 사후관리까지 이뤄진다.

효과적 교육을 위해 교육생들은 교육 담보금 2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85% 이상 출석해야 전액 반환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과학기술대학교 홈페이지(www.bist.ac.kr)나 전화(051-330-7281)로 확인할 수 있다.

최만우 사업단장(호텔관광경영과 교수)은 "현장실무경력을 겸비한 전문교수들의 전문지식이 웰빙분야 예비취업과 창업희망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제 취업과 창업에 관심 있는 부산지역 주민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혁교기자

도시계획조례 '네거티브 방식'으로

부산시는 기존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각종 건축행위 제한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는 '부산시 도시계획 개정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포지티브 방식이 건축물 규제로 허용하는 시설만 열거하는 반면, 네거티브 방식은 금지하는 시설을 관련 법에 열거하고 이를 제외한 어떤 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한다.

부산시는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행위 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된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수용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도 보완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보면 지구단위계획 절차 간소화를 위해 제17조 공동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6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했다.

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에 대해 건축행위를 금지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됐다. /연합뉴스

멀리뛰기 한 판에 1600만원

metro HongKong

이색 부동산 판촉행사

"분양가나 인테리어에 상관 없이 멀리뛰기 성적으로 할인 혜택이 결정됩니다."

8일 중국 장쑤성의 한 분양 사무소에서 독특한 판촉행사가 열렸다. 부동산 구매자들이 멀리뛰기 거리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시행사가 분양 행사로 진행한 멀리뛰기 이벤트에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많은 시민들이 모여 즐겁게 참여했다.

행사장 바닥에는 1000 위안(약 16만5000 원)에서 10만 위안(약 1650만 원)까지 9단계로 선이 그어져 있다. 대부분 1m 정도 거리를 뛰어 5000 위안(약 82만 원)이나 8000 위안(약 13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았다. 현장에서 가장 멀리 뛴 사람은 1만 위안(약 165만 원)을 기록했다.

네티즌들은 "멀리뛰기 선수가 가면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겠다"며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리=조선미 기자

무장 갱단이 뮤비 주인공?

metro France

주차장 촬영 해프닝

프랑스 리옹의 한 주차장에서 뮤직비디오 촬영팀을 무장갱단으로 오해한 해프닝이 벌어졌다.

사건은 지난달 27일 오후 한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20대 남성 11명은 갱단을 암시하는 가죽 장갑과 사무라이 검을 차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갱단 간의 싸움을 예상했지만 조사 결과 이들은 힙합 뮤직비디오를 촬영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출동하자 이들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총기를 모두 내려놓았다.

뮤직비디오 감독과 이야기 한 결과 당시 촬영팀은 사전에 촬영 허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이들은 인근 경찰서에 촬영 허가를 받지 않고 촬영을 시도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촬영을 끝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일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신경 쓰고 있다. 자칫하면 일반 시민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뮤직비디오 감독과 가수는 불법무기소지 및 소란죄 혐의로 기소됐다.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사용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총기는 모두 압수된 상태다.

/미레르 빌랙샹드르 브뱅 기자
정리 = 봉주연 인턴기자

시위대 대치 태국 내전 위기

새 총리 임명 싸고 긴장감 최고조

태국의 반정부 시위대가 12일까지 새 총리 임명을 요구하고 친정부 시위대가 이에 내전 가능성을 경고, 양측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10일 반정부 시위대를 이끌고 있는 수텝 터억수반 전 부총리는 상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최고행정법원에 12일까지 새 총리가 임명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친정부 진영인 '레드셔츠' 시위대는 반정부 진영에 의해 새 총리가 임명되면 내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채 총리를 임명하거나 새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은 지난 7일 헌법재판소가 잉락 친나왓 전 총리에 대해 권력남용으로 해임 결정을 내린 지 사흘 만에 나왔다. 현재 반정부 시위대는 총리 청사와 방송국 등을 점거하거나 봉쇄하고 있다.

독재저항민주연합전선(UDD) 등 레드셔츠 시위대 수천명은 같은 날 방콕 외곽에서 잉락 전 총리의 해임 결정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짜투폰 프롬판 UDD 회장은 "편법에 위해되는 새 총리 임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 위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미 기자 seon@metroseoul.co.kr

10일 태국 방콕 외곽에서 친정부 시위대 '레드 셔츠'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연합뉴스

가슴공격 프랑스 파리 근교 뱅이네에서 열린 머드 챌린지 참가자들이 웅덩이에 진흙을 가득담아 상대방에게 쏟아 붓고 있다. /AFP 연합뉴스

'제2의 사스' 메르스 공포 확산

WHO 긴급회의 소집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가 '제2의 사스' 공포를 일으키고 있다. 이미 사망자가 140여명에 달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11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2012년 9월 첫 환자가 발생한 이래 지금까지 확인된 메르스 감염 환자는 480명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6일까지만 해도 감염환자가 167명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한 달 남짓 만에 거의 3배로 증가한 셈이다.

메르스 감염 지역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메르스 감염자가 확인된 국가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는 물론 영국, 튀니지, 인도네시아, 미국 등 전 세계 19개국에 달한다. 한국에서나 한국인 가운데는 아직 발병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메르스가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른 이유는 무려 30%에 달하는 치사율 때문이다. 이는 2003년 아시아에서 발생, 전 세계에서 8273명이 감염돼 800명 가까이 숨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 치사율 9%의 치사율보다 3배 높은 수치다.

이미 메르스 감염으로 목숨을 잃은 환자는 이날 현재 139명이다.

/사이영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0950-중-23710호

손, 발 질환치료 왜 중요할까?

발가락질환 「무지외반증」 주의!

미니금속나사 교정 절골술로 치료가능
초기에 치료하면 치료만족도 높아

치료 전

치료 3개월 후

발가락 때문에 고민인 여성들이 많다. 폭하나 맘에 드는 신발도 신을 수 없는 휘어진 발가락은 또다른 콤플렉스가 되고 있다. 신발도 문제지만 엄지발가락 뼈 있는 부분이 아픈 것은 더 문제다.

이처럼 무지외반증 치료를 미루다가 엄지발가락 부분에 뼈가 튀어나와 신발을 신어도 아프고, 걸을 때도 아파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병명은 무지외반증이라 부른다.

무지외반증의 증상은 계속 아픈것은 아니지만 가끔가다 쑤실 때는 무척 아플 수 있다. 날씨가 따뜻할 때는 괜찮다가도, 추워지면 더욱 쑤시고 아프다. 오래 걸으면 발부터 허리까지 통증이 욱신거리기도 한다. 이러한 무지외반증도 수술하면 볼 튀어나온 부분 및 쑤시고 아픈 통증도 치료 가능하다.

여성들에게 발병 빈도 높아

오랜기간 하이힐이나 앞이 뾰족한 구두를 신는 여성들의 체중이 엄지발가락에 집중되어 발가락에 변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무지외반증은 높은 빈도로 발병하고 있다.

무지외반증은 정상적인 발의 보행이 힘들면서 무릎과 허리에도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그럼에도 발가락의 작은 부분이라 하여 질병이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냥 체념한 채로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로 인해 무릎과 허리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겨 고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부산에서도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치료 가능해

부산에서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등의 발질환을 주로 치료하는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엄지발가락은 인체에서 일종의 버팀목이자 지렛대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은 물론이고 거동이 부자연스럽고 불편해지면서 자세도 비뚤어져 신체 여러부분에 질환을 앓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엄지발가락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이동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신체부위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걷기에 있어 조그만 변화나 무리가 있으면 우리의 발은 신체에 즉각적인 이상신호를 보내게 된다. 엄지발가락이 휘었다고 부르는 무지외반증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으면서도 치료를 미루다 고통만 키우는 대표적인 엄지발가락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멀리 가지 않더라도 부산에서도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등의 발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미니금속나사를 이용한 무지외반증 치료

상태가 심하지 않다면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교정깔창을 사용해 통증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변형된 정도나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의 무지외반증의 치료는 〈미니금속나사 교정 절골술〉을 시행한다. 부산 당감동에 위치한 대한민국 정형외과 의원도 이 수술을 시행하는데 수술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엄지발가락 하단부위인 제1중족골 부위 한 곳을 절골해 엄지발가락의 위치를 바로잡는다. 이 때 뼈를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미니금속나사가 사용되는 것이다.

수술 부위에 맞는 미니금속나사를 선택해 부착하고 위치를 잡아주는 수술을 시행한다. 미니금속나사의길이는 약 1.8cm 이내로 짧다.

이준호 원장은 "미니금속나사는 부작용이 적고, 제거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며 "수술 후 미니금속나사를 제거 할 필요가 없어서 2차수술이 굳이 필요없어 환자들이 선호하는 편"이라고 설명한다.

시술 시 주의할 점은 간혹 시술 후 부종이나 통증, 부정유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준호 원장은 돌출한 뼈를 제거하는 건막류 절골술, 중족골(발등뼈)의 변형을 교정하는 시술, 발가락뼈를 교정하는 시술, 늘어난 관절낭을 팽팽하게 만드는 '관절낭성형술 등 네가지 수술을 복합적으로 시행하여 재발을 걱정도 적다. 수술은 부위마취로 이루어진다.

수술 후 회복되면 목발 없이 걸을 수 있다. 재활치료 및 회복이 빠르면서도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환자들의 부담도 덜었다.

이준호 원장은 "무지외반증이나 내향성 족지발톱은 엄지발가락에 가해지는 고통도 크지만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몸이 스스로 자세를 변형시키면서 균형을 흐트려서 생기는 합병증도 주의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는 교정이나 수술을 통해 비교적 어렵지 않게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을 참기보다는 진단과 치료를 받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부산 대한민국 정형외과의원
문의 T.051)897-7582

※대한민국정형외과의원 홈페이지(www.대한민국정형외과.kr)를 통해 무지외반증, 지간신경종 이외에도 다양한 손과 발질환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오랜 경험과 수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손질환과 발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효과적인 치료와 빠른 회복을 위해 수부클리닉과 족부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 고운손과 편안한발을 위한 치료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 급성 심근경색 입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로 호전… 삼성서울병원서 회복 중
이재용 부회장, 美 출장중 귀국… 삼성그룹 대책 논의 부심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이 호흡곤란과 심장마비 증세로 병원에서 응급 심장시술을 받은 뒤 안정된 상태로 회복 중이다.

11일 의료계와 삼성그룹 등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10일 오후 10시 56분 서울 한남동 자택 인근 순천향대학병원에 입원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은 뒤 11일 오전 0시15분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져 심장 시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이건희 회장은 순천향대학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기자마자 심장 시술을 받았다. 시술 자체는 길지 않은 시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이 받은 시술은 스텐트(stent) 삽입 시술로 일반적으로 심근경색환자에게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기 위해 행하는 혈관 확장술이다.

삼성그룹 측은 "이 회장이 10일 오후 11시께 호흡곤란 증상으로 자택에서 순천향대병원 응급실로 이동했고 응급실 도착 직후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시행했다"며 "11일 새벽 심장기능 상태가 호전돼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했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돼 관련 심장 시술 후 안정된 상태로 현재 회복 중"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서울병원 역시 이날 오후 "이 회장이 순천향대병원 응급실 도착 직후 심장마비가 발생했으나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심장기능을 회복했다"며 "현재 안정된 상태로 회복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기 응급 치료를 잘 했고 관련 시술도 성공적으로 마쳐 후유증 등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심장기능이 크게 호전돼 이를 유지하기 위한 보존적 치료(약물 및 수액치료)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의 입원 소식에 미국 출장길에 올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오전 귀국, 병원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이준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 전무와 노승만 전무 등도 병원에 집결해 이 회장의 병세 호전 상태를 지켜보는 한편,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해 8월에도 감기가 폐렴 증상으로 발전, 열흘 정도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으며 건강악화설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퇴원한 후 대외활동을 재개한 바 있다.

다만 이 회장은 1990년대 말 폐 림프암으로 수술을 받은 뒤 호흡기가 좋지 않아 매해 겨울철 기온이 따뜻한 지역으로 옮겨 요양하고 있다. 올해에도 연초 신년행사를 마친 뒤 해외로 출국해 미국·일본 등에서 머물다 지난달 17일 귀국했다.

/이세경기자 seyi403@metroseoul.co.kr

market index (15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1957.56 (+5.95)	550.19 (+3.30)	2.84 (-0.01)	1026.00 (+4.50)

삼성 커브드 UHD TV 바람몰이
삼성전자는 31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을 비롯해 주요 4개 도시에서 소비자·주요 유통사를 대상으로 커브드 UHD TV 로드쇼를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 제공

로또복권 제597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8	10	23	24	35	43	37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액
1등	6개 숫자 일치	1,057,970,600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48,838,591
3등	5개 숫자 일치	1,416,183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익환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553-2100
독자센터	02)721-9881

2002년 5월 3일 창간(등록번호 서울라00206)

현대백화점 '럭셔리 워치 페어' 현대백화점이 11일 서울 압구정 본점에서 '2014 럭셔리 워치 페어'를 열고, IWC의 '포르투기즈 크로노그래프 클래식 라우레우스 에디션'을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 /현대백화점 제공

은행들, 외국인 고객 모시기 경쟁

시중은행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고객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외국인 특화 점포를 늘리고, 전용 상품도 잇따라 내놓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외국인이 집중 분포한 지역을 분석해 특화점포나 출장소를 차리고 있다.

외환은행은 외국인 전용 송금센터를 포함해 13곳의 특화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11곳이 2009년 이후 만들어졌다. 우리은행도 외국인 전용 영업점과 송금센터, 환전소 등 20여곳에서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다.

외국인 특화점포는 대부분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외국인 근로자의 환전·송금 업무를 처리해주고, 급여일이 몰리는 20일 전후로는 연장영업도 한다.

은행들은 송금 관련 서비스를 비롯해 예·적금이나 카드·대출 등 외국인 전용 상품도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도 외국인 고객 전용 수시입출금 및 정기예금 상품인 '우리포춘 급여통장'과 정기예금'을 선보였다. 우리포춘 급여통장은 가입만 해도 입출금 내역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김민지기자 minji@

원화 강세, 제조업 채산성 '뚝'

손익분기 1052원… 원화가치 10% 상승시 이익률 0.8%p↓

국내 제조업의 원달러 손익분기 환율은 1052.3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화가치가 10% 상승할 경우, 영업이익률은 0.8%p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업이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 기준 환율은 1077.9원인 것으로 조사돼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경영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월 현재 원달러 평균 환율은 1029.7원으로, 전년도 평균 환율 1095.0원 대비 6.0% 하락한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제조업 중심인 국내 주요 대기업 120개사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

조사결과, 제조업 손익분기 환율은 1052.3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조선업의 손익분기 환율이 1125.0원으로 가장 높았고 ▲음식료 1075.0원 ▲펄프·종이·가구 1067.9원 ▲석유화학 1066.7원 ▲전자·통신 1052.3원 ▲자동차 부품이 105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지금 자금이 회수되는 부분은 2~3년전 선가가 매우 낮은 수준일 때 수주된 것이어서, 적정 수익성을 보장받으려면 환율이 현 수준보다 상당히 높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원재료 수입비중이 높은 산업인 ▲비금속광물 1025.0원 ▲섬유 1025.0원 ▲철강·비철금속 1032.1원 등으로 손익분기 환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또 원화가치가 10% 상승할 경우, 제조업 영업이익률은 평균 0.8%p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이익률 하락폭이 큰 업종은 ▲의약품 1.5%p ▲섬사 통신 1.5%p ▲조선 1.3%p ▲펄프·종이·가구 1.1%p 순으로 나타났다. 비금속광물의 경우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아 영업이익률 감소폭(0.3%p)이 가장 낮았다.

조사 기업들은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 방지를 위해 원가절감노력(42.0%), 환헤지용 파생상품 투자확대(16.8%), 수출단가 조정 추진(16.8%) 등 자체 대응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도 15.3%에 달했다.

특히 정부에 확장적 통화정책 강화 및 수출금융 및 보증지원 확대, 마케팅 등 수출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지원을 주문했다.

/김재규기자 kjg@

코스닥 신용잔고 사상 최대, 부메랑되나

주가상승 기대로 2조 3천억 육박… 하락시 큰 피해

코스닥 신용융자거래잔고(이하 신용잔고)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금융투자업계와 하나대투증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의 신용잔고는 지난 2일 기준 2조3523억원으로 지난해 코스닥지수가 연고점을 갈아치웠을 당시의 2조3427억원을 넘어섰다.

신용잔고 증가는 주가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증권사에서 매수대금을 빌려 투자한 개인투자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다.

코스피가 수년째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올 들어 중소형주와 코스닥 위주의 개별 종목 강세가 나타나면서 이런 경향이 강해졌다.

증시 전문가들은 잇따라 역대 최고치에 근접한 코스닥 신용잔고에 경고음을 울렸다.

박선현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지수가 최근 조정기를 거치면서 주가 하락할 우려가 높아졌다"며 "주가 상승기에는 돈을 빌려 투자한 신용융자가 많을수록 시장에 힘을 더해주지만 주가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용융자는 일반적으로 90일 정도 빌릴 수 있고 최대 기간도 180일이기 때문에 주로 단기차익을 노리고 주식시장에 참여한다.

박 연구원은 "신용융자를 이용한 투자자들은 주가에 매우 민감하므로 주가가 하락하면 신용잔고 처익 매물이 급증해 지수가 더 떨어지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지수도 기존 추세로 볼 때 박스권 상단까지 상승하며 오를 만큼 올랐다. 2000선 돌파 시도를 할 때마다 펀드 환매 등의 여파로 조정 국면에 접어드는 코스피 지수처럼 코스닥도 주가 상승 후 하락세로 빠르게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코스닥지수는 2009년 이후 저점 대비 90거래일 이상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패턴을 거듭했다.

현재 지수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오르기 시작해 이달 7일 현재 92거래일 동안 상승 추세를 잇고 있다.

다만 중소형주 위주의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배성영 현대증권 연구원은 "중소형주의 상승 요건은 이전과 변함이 없다"며 "흐름 자체는 신용잔고에 따른 수급 역회전으로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 종목별 강세장은 좀 더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건설사, 가족 중심 설계 '봇물'

여가생활 중시로 '캠핑장' '텃밭' 인기

가족과의 여가생활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평면과 조경을 제공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입주민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반영한 상품을 선보임으로써 계약률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에서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급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족실이 반영된 신평면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비스면적을 극대화한 4 bay 확장형 설계를 통해 알파룸을 제공, 이를 가족실로 활용하도록 것이다.

한국토지신탁이 경기도 평택시 청북지구 B9블록에 공급한 청북 한양수자인 은 전용면적 84㎡로 이뤄진 718가구 모두에 알파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취향에 따라 가족서재, 악기연주실, AV룸 등으로 꾸밀 수 있다.

GS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에 분양하는 '한강 센트럴 자이' 역시 84㎡ 2468가구 4개 타입에 걸쳐 알파룸을 제공했다. 롯데건설도 서울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2차' 84㎡ 151가구에 이 같은 공간을 만들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이 내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놀이터와 나무 등으로 채워졌던 아파트 조경시설도 진화하기는 마찬가지다.

GS건설은 '한강 센트럴 자이'에 최근 인기 트렌드인 아웃도어 캠핑 열풍에 발맞춰 소형 캠핑데크를 시공, 단지에서 안전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게 했다. 또 체험형 가족텃밭인 '자이팜'도 조성할 예정이다.

SK건설이 인천 남구 용현학익지구에 분양 중인 '인천 SK 스카이뷰'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캠핑숲을 마련한다. 1500㎡ 면적의 캠핑용 데크를 마련하고, 어린 자녀들을 위한 야외 물놀이 시설도 배치할 계획이다.

포스코건설이 앞서 지난 달 25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 '일메 더샵 나인힐스'도 가족이 함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텃밭과 야외 캠핑이 가능한 숲속 캠핑장이 들어선다.

업계 관계자는 "집의 개념이 예전처럼 단순히 잠만 자고 나오는 공간이 아닌, 가족이 함께 하는 가정이라는 의미로 확대되면서 아파트 평면과 조경시설도 변하고 있다"며 "당분간 가족 중심 설계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우기자

롯데마트, 팥빙수 기획전 롯데마트는 11일 서울 성동구 롯데마트 행당역점에서 '팥빙수 기획전'을 열었다. /롯데마트 제공

5월 스마트폰 대전(大戰) 펼쳐지나

베가 아이언2·엑스페리아Z2·G3 잇따라 출시 — 갤럭시S5·G프로2와 맞불

5월에 접어들면서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잇따라 신제품을 출시하며 스마트폰 대전을 예고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팬택과 소니가 지난 8일 전략 스마트폰 '베가 아이언2'와 '엑스페리아Z2'를 각각 공개했다. 베가 아이언2는 12일부터, 엑스페리아Z2는 19일부터 국내시장에 본격 출시된다.

팬택이 이번에 선보인 베가 아이언2는 디자인 부문에서 특별한 제품으로 '리얼 메탈' 테두리에 어느 각도에서 바라봐도 사선이 보이는 '오블리크 스타일'을 적용했다. 색상 역시 총 6가지로 차별화를 두면서 고객 선택폭을 넓혔다.

엔들리스 메탈 부분에 레이저 마킹기로 글자나 기호를 각인시켜주는 '나만의 시그니처' 서비스를 통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스마트폰을 소지할 수도 있다. 아이언2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마트 22개 지점을 포함한 총 25개 서비스센터에서 나만의 시그니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소니 엑스페리아Z2는 동급 최고 수준의 방진·방수 기능을 적용해 변기나 세면대에 기기를 떨어뜨려도 고장이 나지 않는다. 또 5.2인치 풀HD 디스플레이, 2070만 화소 고성능 카메라, 스마트폰 최초의 디지털 노이즈 캔슬링 기술, 배터리 절전 기술 '스태미나' 모드 등을 탑재했다.

LG전자는 28일 국내에서 차세대 QH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G3를 공개할 예정이다. G3는 5.5인치 대화면에 2.5GHz 쿼드 스냅드래곤 801 쿼드코어 프로세서, 3GB 램, 1300만 화소 카메라 등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제품들은 지난 2월과 3월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5', LG전자 'G프로2'와 경쟁을 벌일 것이다. 이르면 8월 애플이 '아이폰6'를 선보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 제조사들은 아이폰6와의 맞대결 이전 판매량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45일간의 이통3사 영업정지가 19일을 기해 모두 마무리되기 때문에 5월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경쟁도 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이 10월부터 본격 적용됨에 따라 단말기 유통법 적용 이전에 가입자 유지를 위한 제조사와 이통3사간 보조금 눈치보기 싸움도 예상된다. 단말기 유통법이 적용되는 10월부터는 사실상 단말기 가격, 보조금 공시 등으로 인해 가입자의 활발한 유치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 영업정지로 인해 잠재된 보조금으로 구매를 망설였던 고객들이 5월부터 잇따라 출시되는 단말기와 이통사 영업재개로 인해 단말기 구매에 대폭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5월부터 시작되는 스마트폰 경쟁이 올 한해 최고의 스마트폰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모델들이 지난 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소니코리아 스마트폰 '엑스페리아 Z2'와 스마트밴드를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화면 커진 '아이폰6' 8월 나온다

4.7인치 1시행 화면에 1000만 화소 카메라, 음악 액세서리 강화… 삼성전자에 빼앗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애플의 신무기가 속속 공개되고 있다.

11일 대만경제일보 등 외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6를 예정보다 한 달여 앞당겨 기본 모델인 4.7인치 화면 제품을 8월에 먼저 선보인다. 고급 모델인 5.5 또는 5.6인치 제품은 9월에 출시된다.

특히 애플은 올해 아이폰6 총 생산 물량을 계획보다 33%가량 늘린 8000만대로 잡았다. 경쟁 제품인 삼성전자의 '갤럭시S5'와의 물량대결에서 절대 뒤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아이폰6는 화면이 커졌지만 두께는 아이폰5S(7.6mm)보다 얇아진 6.9mm다. 길이는 전작에 비해 더 길어지고 가장자리는 기존 아이팟 터치와 비슷하게 둥글어졌다.

성능도 대폭 향상됐다. A8프로세서를 탑재하고 1000만 화소의 카메라 렌즈를 채택했다.

애플은 음악 관련 액세서리 산업 진출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애플이 '헤드셋'으로 유명한 비츠 일렉트로닉스를 32억 달러(약 3조2688억 원)에 인수할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32억 달러에 달하는 이번 거래는 애플의 역대 최대 규모 인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애플이 음악 관련 액세서리 산업은 물론 온라인 음악 시장 강화에 나서 삼성전자와의 진검승부를 벌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계기자

대우증권·롯데자산개발, 직원 채용

구직자들이 주목할 만한 주요기업들이 인재잡기에 나서고 있다.

11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KDB대우증권에서 하계 인턴십 지원자를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상품·마케팅, 기업금융, 트레이딩, 법인영업, 리서치, IT 등이다. 서류전형, 직무능력평가, 면접전형, 인턴십 순으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12일 오후 4시까지 홈페이지(recruit.kdbdw.com)에 지원하면 된다.

롯데자산개발도 14일 오후 6시까지 신입·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직무는 영업, 재무, 자산관리, 부동산개발, 고객관리, 디자인 등이다. 신입사원의 경우 서류전형, 면접전형, 인턴십(3개월), JA전환평가, 최종입사 순으로 진행된다. 인크루트 채용홈페이지에서 지원양식을 내려받은 후 e메일(kwangmanlee@lotte.net)로 지원할 수 있다.

/미국계기자

LG유플러스 가정의 달 맞이 이벤트 LG유플러스가 홈보이에서 제공하는 키즈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하고, 홈보이 가입고객에게 전용 케이스와 세계 명화 이야기 40권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 제공

게임규제 기업 실적 옥죄기 본격화

매출 33% 하락 위메이드, 3일만에 주가 15% ↓

셧다운제와 같은 온라인게임 규제가 본격적으로 게임 기업의 실적을 옥죄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16세 이하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6시까지 온라인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셧다운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4대 중독법'과 같은 추가 규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져 게임 기업들의 근심은 더욱 커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9일 다소 충격적인 실적을 공개했다. 지난 1분기에 연결기준 매출 397억원, 영업손실 106억원, 당기순손실 119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의 경우 전년동기와 비교해 33.1%, 전 분기 대비 15.3% 감소한 것이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분기 연결기준 매출 1521억원, 영업이익 223억원, 당기순이익 149억원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대비 매출은 7.1%, 영업이익은 16.8% 감소한 것으로 특히 웹보드게임에 대한 정부 규제 시행으로 3월 한달 웹보드게임 매출이 1월 대비 60% 이상 줄었다.

이들 기업의 부진한 실적은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위메이드 주가는 7~9일에만 14.91% 빠졌다. 실적 발표일인 9일 무려 11.36% 빠졌다.

같은 기간 주요 게임사의 주가도 형편은 마찬가지다. 코스닥에 상장된 20개 게임사의 평균 주가 하락률은 -4.33%로, 1.51%에 그친 코스닥 평균 하락률과 대조를 이뤘다.

오는 13일 게임빌, 14일 네오위즈게임즈, 14일 엔씨소프트의 실적 발표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가 게임사의 실적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모바일게임이 득세하면서 온라인게임의 파이가 줄어든 부분도 없지 않다"며 "모바일 게임이 주력인 CJ넷마블은 지난해 전년대비 매출이 132% 상승했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결혼 전 금융관리 '이렇게'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주 주제는 미혼기에 꼭 알아야 할 금융관리 7대 원칙입니다.

1. 종잣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라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돈을 모아서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자금을 모으면 종잣돈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자산 운용은 일단 목돈을 모은 다음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2. 선 저축 후 지출하라

월급으로 쓸 돈을 다 쓰고 남는 돈만 저축해서는 절대로 돈을 모을 수 없습니다. 미혼기부터 월 수입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는 원칙을 갖고 금융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3. 통장은 쪼개서 관리하라

통장을 두세 개 만들어 목적성 자금용, 수입 전용, 지출 전용 등으로 사용하면 효율적입니다. 아예 적금 통장에 '여행자금'이나 '결혼자금'과 같은 뚜렷한 자금의 목표를 적어놔도 좋습니다.

4. 체크카드를 사용하라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쉽게 카드를 긁는 충동구매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날그날 소비에 민감해지므로 매일 가계부를 쓰는 것과 같은 효과도 노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15%)의 두 배에 달하는 높은 소득공제율(30%)을 누리는 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5. 소모성 대출은 최대한 피하라

마이너스 대출이 꼭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남발하는 습관은 평생 충동구매로 빚에 시달리는 인생을 사는 지름길입니다.

6. 신용을 관리하라

신용이 좋지 않으면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줄어들고 돈을 빌릴 때에도 이자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평소 대출이자나 카드대금 결제는 연체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현금서비스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7. 복리를 생각하라

미혼기에 가진 건 시간뿐이라는 점을 십분 활용해야 합니다. 미혼기부터 제대로 돈을 관리하면 장기간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 금융상담전화 1332

/정리=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갤러리아 별·하트 모양 오이 출시 갤러리아백화점은 최근 하트와 별 모양의 채소를 케이스에 담아 키운 미니오이를 선보였다. /갤러리아백화점 제공

"유럽 돈 풀면 외인 자금 돌아온다"

금융가 사람들

• KDB 대우증권 이정민 연구원

국내 주식시장에 유럽계 외국인 자금이 돌아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정민(사진)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은 선진국의 통화정책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조만간 유럽중앙은행(ECB)이 금융완화 정책을 시행한다면 유럽계 자금이 순매수로 돌아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은 미국계가 40%, 유럽이 16%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 연구원은 "미국계 자금은 장기적인 성격의 투자가 많은 반면 유럽계의 경우 유동성이 많다"며 "지난 3년간 ECB가 금융완화 정책을 시행했던 시기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집중적으로 순매수했으나 긴축으로 돈줄을 죄면서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유럽계 자금은 국내 증시에서 5개월 연속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 그러나 이 연구원은 "재정위기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 국면에 놓인 유럽은 들가 우려를 덜기 위해 조만간 금융완화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PIIGS 국가들의 회복을 돕는 측면에서라도 ECB가 금융완화로 돌아설 것"이라며 "다음달 ECB가 실제로 관련 정책을 내놓는다면 유럽계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대해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국내 증시에 탄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기자

2개 스크린으로 이동하며 회의한다

임의택의 차차차

■ 크라이슬러 그랜드 보이저

장거리 여행 최적화된 공간

최근 국내에서 오토캠핑이 큰 인기를 끌면서 RV의 인기가 날이 오르고 있다. RV는 크게 SUV와 미니밴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미니밴의 선구자는 미국 크라이슬러다. 1983년 등장한 플리머드 보이저와 닷지 캐러밴이 그 주인공들이다.

이들 차종이 히트하면서 크라이슬러는 미니밴의 선두주자로 주목받게 된다. 이후 플리머드 디비전이 없어져 크라이슬러 타운&컨트리와 닷지 그랜드 보이저, 두 차종으로 통합됐다. 최근 미국에서는 두 차종의 시장이 겹친다는 이유로 닷지 그랜드 보이저를 없애고 크라이슬러 타운&컨트리만 생산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에 수출되는 모델의 이름은 크라이슬러 그랜드 보이저다. 미국 내수용과 같은 모델이지만 각기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선택해 판청 결과 이렇게 결정됐다.

최근 새롭게 선보인 뉴 그랜드 보이저는 편의장비를 대폭 보강했다. 타깃은 출장이 잦은 비즈니스맨이나 의전용 차가 필요한 대기업들이다.

경쟁차종과 다른 것 중 하나는 2개의 천장 수납형 LCD 스크린을 내장했다는 점이다. 덕분에 1개의 스크린을 설치한 혼다 오딧세이와 토요타 시에나와 비교할 때 3열 승객의 시청이 훨씬 수월하다. 아이패드나 노트북을 연결해 스크린으로 볼 수 있어 이동 중 회의도 가능하다.

시트 배치도 독창적이다. 미국 내수용의 경우 2열과 3열이 모두 바닥에 수납되는 스토우 앤 고(Stow n Go)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국 수출형에는 2열에 나파 가죽을 사용한 VIP 패키지 시트를 적용해 럭셔리 세단 못지않게 안락하다. 3열 시트를 접으면 바닥은 평평하게 만들 수 있어 짐 공간이 더욱 넓어진다.

▲한 줄 평가: 미니밴의 기능에 충실했다. 연비는좀 아쉽다 ▲평점: ★★★★ (별점은 별 다섯 개 만점)

운전석에 앉으면 계기판 바로 옆에 있는 변속기가 눈에 띈다. 센터콘솔 쪽에 달린 방식에 비해 낯선 감이 있지만 운전 중에 조작하기에는 더 편하다. V6 3.6ℓ 가솔린 엔진은 283마력의 출력으로 동급에서는 가장 우월하다. 가속 반응은 빠르고 경쾌하며 큰 덩치를 날렵하게 이끈다.

대신 경쟁차종 중 가장 낮은 연비(복합 7.9km/ℓ)가 선택을 주저하게 만든다. 오딧세이의 복합연비는 9.1km/ℓ, 시에나는 8.5km/ℓ로 그랜드 보이저보다 낫다. 이번 시승에서 그랜드 보이저는 6.0km/ℓ의 연비를 기록했다.

그랜드 보이저는 미국차의 고질병인 마무리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한 점이 돋보인다. 승차감이 안락하면서도 고속주행에서도 안정감이 있어서 여행을 즐기기에 더 없이 좋다. 가격은 6970만원으로 고급 세단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있다. 5명 이상이 자주 탑승하거나 장거리 이동을 하는 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차다.

/임의택기자 ferrari@metroseoul.co.kr

한국GM, 그림 그리기 대회

쉐보레(Chevrolet)가 한국GM 부평 본사 홍보관에서 쉐보레 도입 3주년 기념 어린이 그림 그리기 본선 대회를 10일 개최했다.

'자동차와 함께하는 상상여행'이라는 주제로 예선 작품만 총 4200여점이 넘게 접수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인 그림 그리기 대회의 본선에서는 유치부와 초등부 각각 10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대 6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국내·해외 단기 연수권, 여행권 등이 제공됐다.

이번 행사는 100년 역사를 지닌 쉐보레 브랜드의 국내 도입 3주년을 기념하고,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자 전국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자동차'를 소재로 한 자유 주제의 그림을 그렸고, 창의력, 주제의 표현력, 색채의 조화도, 작품의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우수작이 선정됐다. /임의택기자

수입차 시장, BMW vs 벤츠 경쟁

브랜드 순위, 벤츠 앞서

국내 수입차시장에서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BMW는 지난 4월 3625대를 메르세데스 벤츠는 3310대를 판매해 두 업체의 격차가 급격히 좁았다. 특히 단일 모델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E220 CDI(623대)가 BMW 520d(599대)를 누르며 경쟁구도가 흥미롭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2014년 4월 수입차 신규등록대수는 3월 등록보다 6.2% 증가한 1만6712대로 집계됐다. 4월 등록은 전년 동월 1만3320대보다는 25.5% 증가했다.

4월 브랜드별 등록대수는 BMW, 메르세데스 벤츠에 이어 폭스바겐 2609대, 아우디 1980대, 포드 799대, 렉서스 601대, 토요타 543대, 닛산 443대, 혼다 374대, 랜드로버 355대, 크라이슬러 344대, 푸조 330대, 미니 302대, 볼보 218대, 포르쉐 217대, 인피니티 211대로 집계됐다.

베스트셀러 순위 10위 안에는 E220 CDI, 520d에 이어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블루모션, BMW 520d X드라이브, 폭스바겐 제타 2.0 TDI, 렉서스 ES300h, BMW 320d, 폭스바겐 골프 2.0 TDI, 메르세데스 벤츠 E250 CDI, 아우디 A6 2.0 TDI가 올랐다. /임의택기자

<국산차·수입차 인기 SUV, MPV 중고차 시세> (단위: 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현대	투싼ix	1,580	1,840	1,720	2,000	2,140
	싼타페DM	-		-	2,570	2,950
기아	스포티지R		1,760	1,820	2,070	2,140
	카니발R	-	1,890	2,190	2,400	2,660
쉐보레	올란도	-		1,580	1,640	1,830
삼성	QM5	1,360	1,570	2,710	2,040	2,790
쌍용	코란도C	-		1,720	1,810	1,900
	렉스턴W	-			2,580	2,760
BMW	X3	4,820	5,590	6,030	6,910	7,540
폭스바겐	티구안	2,430	2,510	2,920	3,360	3,730
아우디	Q5	3,530	3,920	4,230	4,770	5,370

정보제공: 다나와 자동차 auto.danawa.com

RIA DAY

5월 13일

새우버거

~~₩3,300~~ ₩1,600

5월 14일

양념감자

~~₩1,900~~ ₩1,000

PM 2:00 - 10:00

6월 RIA DAY를 기대하세요!

- 제휴카드, 롯데멤버스카드 할인 제외
- 홈서비스 및 일부점포 제외

대한노인회, '인공관절 후원 캠페인' 저소득층 퇴행성관절염 환자에 희망 전달

극심한 무릎통증 퇴행성관절염 '말기', '인공관절 수술'로 해결
'저소득층 인공관절 후원 캠페인' 전개, 전화·우편·e메일로 신청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 '인공관절 수술 후원 캠페인'을 전개한다. 무릎 퇴행성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수술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가 그 대상이다.

◆퇴행성관절염 말기, '인공관절 치환술'로 통증 줄이고 무릎기능 회복

퇴행성관절염은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의 약 80%가 앓고있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다. 특히 보행과 직접 연관이 있는 무릎관절은 다른 신체부위보다 퇴행 속도가 빠르다.

또 퇴행성관절염 초·중기를 지나 말기에 이르면 극심한 통증으로 밤에 잠을 자기 힘들다. 무릎이 심하게 붓고 다리모양이 'O자형'으로 휘기도 한다. 말기는 약물치료나 주사치료를 시행하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으로, 인공관절 수술만이 최선의 치료법이다.

인공관절 수술은 염증 관절 대신 인공적으로 제작된 관절을 무릎 내에 이식하는 방법이다. 인공관절은 운동 각도를 늘린 고굴곡 인공관절, 여성의 골격에 맞춘 여성형 인공관절, 개인 골격에 정확히 맞춘 맞춤형 인공관절 등이 있다. 수술 후에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가능하다.

◆저소득층에겐 부담스러운 인공관절 수술 비용

인공관절 수술을 한쪽 무릎만 시행했을 경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약 250만~300만원이다. 양쪽 무릎을 모두 수술한다면 대략 500만원 정도가 든다. 수술 전후의 검사와 진료비, 간병비 등을 합치면 적어도 600만~7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만약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본인 부담금은 2배로 증가한다.

◆대한노인회, 노인들의 무릎 건강 되찾아 주고자 '인공관절 수술 후원 캠페인' 전개

저소득층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은 질환이 발생해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수술비 대기가 버겁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노인회(회장 이심)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을 위한 '인공관절 수술 후원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 대상자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형편이 안 되는 저소득층(생활보호대상자 1종, 차상위계층) 퇴행성관절염 말기 환자다.

나영기 대한노인회 보건의료사업단 단장은 "대다수의 노인들이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지만 경제적 이유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며 안타까웠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무릎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캠페인을 주최·주관하는 대한노인회는 1969년에 설립돼 약 300만 명의 회원이 가입된 사단법인이다.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운영, 노인생활 소식지 발간사업, 노인취업 지원본부 운영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치료 후원 신청 방법

캠페인은 내년 4월까지 진행되며 전화 및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 본인 이외의 대리인이 신청해도 된다.

전화: 1661-6595(대한노인회 보건의료사업단)

우편: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43(대한노인회 보건의료사업단) '인공관절 수술 후원 캠페인' 담당자 앞

e메일: ok6595@naver.com

이대연구센터, 보건복지부 지원금 수혜

'난치성 여성암 정복특성화 연구사업' 추진

이대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센터장 김승철·사진)가 2014년 보건복지부 질환 극복 기술 개발 연구과제 중 '병원 특성화 연구센터 지원 사업' 부문 2단계 사업을 시작한다.

2단계 사업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행된 1단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센터는 2016년까지 3년 동안 매년 국비 10억원과 주관 기관 대응비 10억원 등 총 60억원을 지원받는다.

이에 센터는 '난치성 여성암 정복을 위한 특성화 연구사업'을 추진해 원천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센터 수익 모델 개발을 기대하고 있다.

김승철 이대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장은 "치료 가능한 시기에 조기 발견하고 기존에 없던 신개념 치료법을 적용한다면 난치성 여성암을 정복할 수 있다"며 "신의료기술을 개발해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대여성암정복특성화센터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재용기자

가정의달, 대학병원들 건강강좌 마련

대학병원들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다양한 건강강좌를 마련했다.

먼저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이 12일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올바른 이해와 치료'를 주제로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강좌에서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대한 정보와 관리법 등이 소개되어 심장질환과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 인제대 서울백병원은 13일 중무아트홀에서 '암 예방 비타민, 있다? 없다?'라는 건강강좌를 연다. 김광아 서울백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연자로 나서 비타민의 종류에 따른 효능과 기능, 암을 예방하는 비타민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은 강의에 앞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대병원은 14일 갑상선 질환과 관련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15일 서울대암병원 암건강증진센터에서는 '암을 이겨낸 여성, 나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주제의 건강강좌가 열린다.

/김학철기자 kimc0514@

야외활동, 구급약 꼭 챙기세요~

상처 나면 지혈 먼저… 찔리거나 벤 상처 파상풍 주의해야

기온이 올라가면서 야외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활동량이 늘어나는 만큼 넘어지거나 날카로운 물체에 찔려 피부에 상처를 입을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며 야외에 나갈 때는 미리 구급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상처 파고드는 이물질 조심해야

야외활동 시 대부분의 상처는 찰과상이다. 찰과상은 마찰에 의해 피부가 문질러져 생기는 상처다. 상처가 깊지 않은 대신 손상 과정에서 이물질이 피부 속으로 파고들 수 있어 신속히 치료해야 한다.

상처가 나면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일회용 밴드나 거즈 등으로 상처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만약 부위가 넓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효과적이다.

타박상은 넘어질 때 흔히 생기는 상처로 충격을 받을 때 피부 안쪽의 미세혈관에 출혈이 생긴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치료되지만 찜질을 통해 회복을 도울 수 있다.

상처가 난 직후에는 냉찜질이 좋으며 2~3일 뒤에는 온찜질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야 한다.

또 등산을 하다 종종 발생하는 자상과 열상이 있다. 자상은 찔린 상처, 열상은 베이거나 찢긴 상처를 말한다. 이 두 상처는 일단 지혈을 한 뒤 2차적인 감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지혈 후 소독을 하고 상처를 붕대나 밴드로 감싸야 한다.

만약 녹슨 금속에 상처가 났거나 상처에 모래나 흙 등의 이물질이 들어갔다면 파상풍으로 번질 수 있다. 되도록 빨리 병원을 찾아 파상풍 예방 주사를 맞아야 한다.

김산 웰스피부과 원장은 "가벼운 찰과상이나 타박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만 상처가 깊으면 흉터가 오래도록 남을 수 있다"며 "상처가 나면 지혈과 함께 환부를 깨끗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아웃도어 업계, 스토리마케팅 활발

드라마 엔딩 재구성·인기곡 리메이크·일반인 다큐멘터리 제작 등

여름을 앞두고 아웃도어 경쟁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업계는 소비자 기억에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각인 시키고 즉각적인 반응과 매출을 올리는 '스토리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과거에는 15초짜리 광고가 짧은 시간 동안 주력 제품의 기능성을 어필해 구매를 자극했다면 최근의 광고는 TV라는 제한된 미디어와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로로 확장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스토리텔링 기법은 소비자들이 브랜드와 제품에 호감을 갖고 기억한다는 점과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발적인 전파가 가능하며 즉각적인 소비자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지난 29일 종영한 MBC 월화드라마 '기황후' 회 마지막 회에서 공개된 '기황후 에필로그'는 드라마 엔딩을 재구성한 대표적인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주목 받았다. 이 영상은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케이프가 제작한 것으로 드라마 속에서 안타깝게 끝이난 하지원과 지창욱의 사랑을 2014년 서울을 배경으로 재구성해 운명의 끈을 이어간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영상 캠페인을 기획한 김희섭 패션그룹 형지 마케팅 본부장은 "TV광고는 기황후 50회와 51회 단 두 번 노출했을 뿐인데 호기심을 느끼고 온라인으로 유입된 소비자들에 의해 기황후 에필로그' 영상이 실시간 검색 1위에 오르는 등 화제를 불러일으켰다"며 "브랜드 인지도, 호감도 상승은 물론 매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제품 출시와 함께 뮤직드라마를 제작하고 음원을 출시하는 아웃도어 회사의 사례도 있다. 빈폴 아웃도어는 윈드브레이커 출시를 기념해 전속 모델인 김수현과 수지가 출연하는 뮤직드라마를 제작했다.

특히 배경 음악으로 사용된 곡은 가수 김범룡의 오랜 히트곡 '바람바람바람'을 보사노바 풍으로 리메이크한 것으로 젊은 세대부터 장년층까지 효과적으로 각인시켰다는 게 업계 측의 설명이다.

이밖에 수지가 직접 부른 '바람바람바람' 음원, 정형돈과 가수 데프콘의 패러디 버전 뮤직 드라마, 메이크 다큐 등을 순차적으로 공개해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영상과 노래를 접한 소비자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며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고, 그 결과 영상에 등장하는 스타가 착용한 의상에 호감을 갖게 돼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한다.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을 광고 모델로 발탁해 그들이 가진 사연을 토대로 광고를 제작하기도 한다. 블랙야크는 사연을 가진 일반인들을 기용해 제작한 TV CF '내 인생의 히말라야를 만난다' 광고를 공개했다.

/김하늘기자 kimo0204@metroseoul.co.kr

한일축제한마당 10주년 캐릭터 공모

6월 2일까지 이메일 접수

한일축제한마당 운영위원회는 10주년을 맞이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축제 캐릭터 디자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6월 2일까지 캐릭터 공모전을 연다.

캐릭터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한일축제한마당 공식 홈페이지(http://www.cmasun.kr) 또는 공식 블로그(http://kjfestivalseoul.tistory.com)에서 지원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kjfestivalseoul@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작품은 용량 100MB 이하 해상도 300dpi 이상의 원본 ai 파일 및 jpg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단,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작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는 한일축제한마당 운영위원회가 소유한다.

대상(1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100만원을 수여하고 우수상(3명)은 초·중·고등학생 부문, 대학(원)생 부문, 일반인 부문으로 선발해 상장·상금 30만원을 준다. 또 특별상(6명)에는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며 수상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된다.

수상자 발표는 6월 1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다. 시상식은 9월 14일 '한일축제한마당 2014 in Seoul'에서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일축제한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페이스북 www.facebook.com/kjfestivalseoul 트위터 www.twitter.com/kjfestivalseoul

/정혜인기자 hljung0404@

휘닉스파크, '웰니스 캠핑 카니발' 개최

청정 자연 강원도에서 즐기는 캠핑 축제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가 캠핑의 계절을 맞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힐링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웰니스 캠핑 카니발'을 개최한다.

카니발은 휘닉스파크가 천혜의 자연경관과 다양한 관광지, 가족형 리조트들이 위치한 강원도 평창군의 축제 콘텐츠 개발의 일환으로 마련한 웰빙 축제 프로그램으로 도시생활에 지친 심신을 잠시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캠핑 문화 축제다.

캠핑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캠핑 사이트와 BBQ용 돼지고기(1인 200g제공) 및 음료, 몽블랑(양떼목장) 관광 케이블카, 숲 해설 트래킹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참가비는 1팀당(최대 4인) 4만원이다.

또 캠핑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문패 만들기, 미니 운동회, 캠프파이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

참가 신청은 휘닉스파크 홈페이지(www.pp.co.kr)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휘닉스파크는 가정의 달을 맞아 고객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휘닉스파크 패키지 상품인 '수(秀) 패키지'를 선보이기도 했다. 문의 02)527-9435

/황재용기자

듀퐁, 론칭 12주년 이벤트 진행

S.T 듀퐁 클래식은 브랜드 론칭 12주년을 맞아 기점의 달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회사는 이번 프로모션의 아이템을 남성에게 꼭 필요한 셔츠와 타이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품 구성에 따라 10만원·20만원 기프트 세트로 판매 될 예정이며 이벤트 기간 중 구매 고객에 한해 10% 할인 혜택을 준다.

이와 함께 정상 상품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100만원 상당의 가족여행 상품권과 영화 관람권, 비스니스 양말 세트 등 다양한 상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00% 당첨 행운의 쿠폰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모션은 오는 18일까지 전국 백화점 S.T 듀퐁 클래식 매장에서 진행된다.

/김하늘기자

놀부 부대찌개&철판구이 신메뉴 4종 출시

종합외식전문기업 놀부NBG(대표 김준영)가 23년 전통과 노하우가 깃든 특제 소스와 육수를 자체적으로 개발, 고객들이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부대찌개 3종, 철판구이 1종의 신메뉴를 출시했다.

'소고기부대찌개'는 부드러운 소고기를 듬뿍 넣어 더욱 푸짐하고 고급스럽게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메뉴다. '그릴소시지부대찌개'는 부대찌개의 핵심재료라 할 수 있는 소시지를 특화한 메뉴로 준비 그릴 소시지를 재료로 활용하여 풍미와 식감을 더했다.

특히 '카레부대찌개'는 놀부가 여성고객들을 위해 준비한 이색메뉴다.

또 기존에 있던 낙지나 닭갈비 철판구이에 이어 패권한 특제소스에 우삼겹을 버무려 볶아 먹는 '우삼겹철판구이'를 새롭게 출시했다.

한편 놀부는 이번 신메뉴와 함께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식의 '비벼 먹는 부대찌개'를 제안했다.

/정혜인기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아' 업계, 이색 포장 마케팅

식품·외식업계의 이색 포장 마케팅이 전화하고 있다. 업계는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패키지를 제작하는 일차원적인 목적 외에 시각과 스토리를 활용하거나 브랜드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등 상품 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패키지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도미노피자는 최근 베스트셀러 피자 2판과 사이드디쉬 4종을 하나의 박스에 담은 '도미노 올스타팩'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피자 2판을 한 패키지에 담기 위해 박스를 복분 2단으로 구성해 기존의 사각 박스 형식에서 탈피해 내용물의 특징을 살렸다. 또 '올스타'를 연상하는 별 모양의 패키지 디자인은 스타 메뉴만을 담았다는 스토리에 집중하며 소비자의 관심과 이목을 끌고 있다.

티센에서도 입으로 마시고 눈으로 즐기는 '마음티 시리즈'를 출시하며 디자이너 이담우와 콜라보레이션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다. 회사·카페 사우나 등 각각 다른 주제별로 '힐링' '첫사랑' 유머 등 감성 스토리를 담아 시리즈로 출시했다. 사람이 양팔을 벌리고 있는 모양의 태그지를 적용한 거치식 티백으로 감수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충족시켰다.

본도시락은 '어린 냄비된장 도시락'과 '고추장 떡고 멸멸도시락'을 출시를 기념해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피크닉 바구니 형태의 박스를 선보이고 있다. 감각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 패키지로 나들이를 즐기는 고객들이 이용하기에 제격이다.

/정혜선기자

"로컬푸드의 도전"… 'SEOUL FOOD 2014' 개최

중남미 4개국 연합 'Pacific Alliance' 참여 등 각축전 예고
참가업체에 비즈니스 지원, 참관객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

SEOUL FOOD 2014

국내 최대이자 아시아 3대 식품산업전문 전시회로 각광받고 있는 '2014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이하 SEOUL FOOD 2014)'이 13일부터 16일까지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된다.

◆각 국 로컬푸드 간 전쟁 예고

올해로 32회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국내 외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KOTRA(사장 오영호)가 주최하는 전시회다. '로컬식품의 도전(The challenge of Local)'이라는 주제로 지역 및 국내 소비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전 세계 다양한 로컬식품들을 선보이게 된다.

행사 규모는 사상 최대로 준비됐다. 전 세계 43개국 1327개의 식품기업이 참여해 총 2537개 부스를 준비한다. 참가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볼거리도 풍성해졌다. 중남미의 볼리비아·우루과이·파라과이를 비롯해 유럽의 루마니아, 러시아, 아프리카의 알제리가 새로 참여해 각 국의 로컬푸드를 선보인다.

특히 중남미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멕시코·칠레·콜롬비아·페루의 4개국은 경제협력체 '퍼시픽 얼라이언스(Pacific Alliance)'라는 이름으로 공동관을 구성해 특색 있는 로컬푸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차세대 식품한류를 위한 지원책 강화

KOTRA는 참가업체의 실질적인 비즈니스와 K-FOOD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바이어 상담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초청 바이어는 멘토링 제도를 통해 참가업체들의 품목에 맞춰 진행됐다.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한 사전 참가업체 홍보로 행사 마지막까지 바이어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전시회 기간 중에는 해외 유력 바이어 100개사를 초청해 글로벌 푸드 플라자(Global Food Plaza)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한국식품에 관심이 많은 글로벌 유통기업 10개사와 교포 바이어들을 초청해 입점과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 열린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전시회 장면 KOTRA 제공

KOTRA는 전시회 국내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Seoul Food Awards'를 통해 유행을 대표하는 우수상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상품은 별도로 마련된 특별관 전시를 통해 현장을 찾은 바이어들과 참관객들에게 소개된다. 우수상품의 선정은 ▲웰빙 푸드, 건강식품, 오가닉 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힐링(Healing) 부문 ▲뛰어난 맛과 디자인의 디저트를 선정하는 스윗&팬시(Sweet&Fancy) 부문 ▲제조방법이나 포장방법이 개발된 식품을 찾는 이노베이션(Innovation) 부문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일반 참관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

'SEOUL FOOD 2014'는 일반 소비자들과 접점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 그린마켓(Green Market)도 신설한다. 이 곳은 일반 소비자들이 참관하고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시관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13~15일까지 제3회 2014 서울국제조리학교&학원전(SEOUL CULINARY 2014) ▲'서울컬리너리 드림보크쇼'와 '쿠킹콘서트' ▲'서울식음료조리경연대회' 등도 함께 개최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www.seoulfoo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윤희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강강술래 한우곰탕 등 최대 40% 할인

라임나무치과와 임플란트 무료시술 캠페인 진행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다양한 선물세트를 파격할인 판매한다.

온라인쇼핑몰(sullasoo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이달 15일까지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세트(500㎖·5팩·15인분)는 3만3600원, 소용량세트(350㎖·5팩·10인분)는 1만9500원,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6봉)는 2만1600원에 각각 40% 할인 판매한다.

또 이달 말까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통등심돈가스와 모짜렐라치즈돈가스, 철철한우떡갈비, 흑임자탄탄네비아니가 각각 1세트씩 들어간 어린이선물세트도 40% 할인된 3만9000원에 판매한다. 구매 시 버블건 장난감을 선물로 증정한다.

같은 기간 '영광법성포'에서 자연해풍에 3개월 이상 건조해 만든 국내산 보리굴비 10마리 세트는 10만4000원, 20마리 세트는 7만2000원에 2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한편 5월 말까지 라임나무치과네트워크와 함께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치아질환으로 고생하는 어려운 이웃 3분을 선정해 임플란트 또는 틀니를 무료로 시술해주는 사회공헌 캠페인을 진행한다.

라임나무치과는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임플란트, 심미보철, 교정, 미백, 충치치료 등 분과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분야 최고 실력을 갖춘 의료진이 신속한 맞춤 진단과 협진에 의한 원스톱 진료를 하고 있다.

/김학철기자

남양, '누보'로 시장 점유율 50% 기대

원두 함량 높이고 인산염 빼고

남양유업이 지난해 12월 야심차게 출시한 '프렌치카페 커피믹스 누보'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남양은 이 제품이 2016년까지 국내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하는데 청신호를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남양유업이 지난해 12월 2일 2000억원을 투자한 나주커피전용공장의 준공과 함께 선보인 신제품이다.

누보는 기존의 커피믹스들과는 전혀 다른 BAR 로스팅 공법으로 혁신적인 맛을 내는데 성공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BAR공법은 원두별 특성에 맞는 온도와 조건에 따라 각각 따로 로스팅 한 후 원두를 블렌딩한다. 기존의 공법 대비 원두 고유의 향이 풍부하게 남게 된다는 것이다.

또 누보는 커피믹스에 들어가는 아라비카 원두의 함량을 65%에서 80%로 15% 높여 고급화했다. 미국 스페셜티커피협회(SCAA) 기준으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됐다.

그 결과 남양유업이 하루 평균 2회 이상 커피를 음용하는 30~40대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현재 국내 시판하는 모든 커피믹스 중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회사 측은 국내 최초로 제조상 편의를 위해 크리머에 첨가하는 식품첨가물인 '인산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인(P)은 동물의 뼈나 이 등의 주요 성분이고 인지질(membrane)과 핵산 등이 중요한 유기 화합물로서 인체에 중요한 요소이다.

문제는 한국인의 하루 평균 인 섭취량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이다.

특히 커피믹스는 1개당 약 30~35㎎의 인을 함유하고 있어 하루에 3잔의 커피믹스를 마시는 사람의 경우 커피믹스로만 100㎎에 가까운 인을 섭취하게 된다.

누보는 커피믹스에 함유된 인의 유해물질인 첨가물 '인산염'을 빼고 과일에서 유래한 천연식품원료로 대체하는데 성공해 현재 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다.

/황재용기자

metro entertainment

연기부터 예능까지 접수하다

장들 어어 롤필어트 출연 서강준

쉬는날 없이 연기 연습 삼매경
'소처럼 일하는' 배우가 목표
하정우·유아인, 닮고싶은 대상

지난해 겨울 MBC 드라마 페스티벌 '하늘재 살인사건'에서 고독한 눈빛을 뿜어내며 신인답지 않은 연기를 보인 배우 서강준(21). 그는 인터뷰 내내 연기에 대한 열정과 목표를 진지하게 설명하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금세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길고양이에게 시선을 빼앗기는 10대 소년 같은 느낌도 지니고 있었다.

◆고양이 같은 눈매 지닌 청년

"2년 전 길고양이 두 마리를 키웠다. 아침 등굣길에 어기 고양이가 울고 있기에 '엄마가 근처에 있겠지' 하는 생각에 우선 지나쳤다. 근데 하굣길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 집으로 데려와서 물이랑 밥을 챙겨줬다. 그렇게 고양이랑 살기 시작했다." 그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반려동물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애착에도 남다른 일가견이 있었다.

"중 2때부터 영화에 빠져서 밤마다 영화를 봤어요. 이제까지 거의 1000편 가까이 본 것 같아요. 몇 번이고 다시 본 영화는 '어디널 선샤인'이에요. 특정한 장르를 고집하진 않고 그 날 기분에 따라 선택해요."

영화를 탐닉하던 '시네키드'는 젊은 배우로 성장했다. 관객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던 때와 지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릴 땐 그저 좋아서 봤다면 이젠 모든 게 공부죠. 고등학교 때까지 꿈이 없었어요. 그저 영화 보는 게 좋았던 거죠. 그땐 연기를 쉽게 생각했는데 제가 막상 해보니 정말 어렵더라구요. 얼마 전 쉬는 날 '역린'을 보러 가서 소리를 안 내고 대사를 따라 하기도 했어요. '밥 먹었어?' 이런 짧은 대사 하나도 표현 방법이 다르고 시선처리도 다 달라서 선배들의 연기를 보며 배우려고 해요."

◆연기는 철저한 예습복습

쉬는 날마저도 연기 연습에 매진하는 '연기 모범생'이라는 칭찬에 그는 "연기는 일이라고 생각 안 한다. 잘 하고 싶단 생각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첫 주연작 '하늘재 살인사건'에서 사랑하는 정분(문소리)의 곁에 머무르기 위해 그의 딸과 결혼하는 파격적인 캐릭터를 연기했다.

"처음엔 혹시 저 때문에 작품에 누가 될까 정말 걱정이 많았고 부담도 컸어요. 감독님과 2주 내내 만나서 윤하(극중 캐릭터)가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 어떤 아픔을 지니고 있기에 정분을 사랑하게 되는 지 세밀한 부분까지 공부했더니 (시청자들이)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는 문소리에 이어 얼마 전 종영한 MBC 수목극 '앙큼한 돌싱녀'에서도 11살 위인 이민정과 호흡을 맞췄다. 연이어 연상의 여인들과 연기를 하는 것에 대해 그는 "연기할 때 만큼은 누나들이 정말 예뻐 보인다"고 말한다.

◆예능과 연기, 두 토끼으로?

최근 SBS 예능 프로그램 '룸메이트'의 일원이 됐다. 연기만 고집할 것 같았던 그의 이미지와는 상반된 행보였다. 예능으로 이미지가 소모되는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에 "배우는 대중과 소통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예능에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장점도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연기와 예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다는 서강준의 데뷔작은 정극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방과 후 복불복'이었다. 마치 만화 같은 구성에 코믹한 요소가 강하고 개연성이 떨어지는 황당한 스토리지만 서강준과 그가 속한 그룹 서프라이즈의 매력만큼은 확실히 돋보이는 시트콤이었다. 하지만 그는 "돌이켜보면 연기가 아쉽다"며 "지금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기에 대해 끝없는 욕심을 내비치는 그가 닮고 싶은 선배는 하정우와 유아인이었다. 두 배우의 공통점은 긴 공백 없이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작품을 끊이지 않고 꾸준히 하고 싶어요. 무슨 상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보단 역할 크기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연기를 하고 싶어요."

사진/현제욱(라운드테이블) 디자인/원승이

휘성·지나·홍진영 동반 컴백

5월 가요계 풍성…R&B·댄스·트로트까지 장르도 다양

홍진영

지나

휘성

5월 기요계가 가수들의 릴레이 컴백으로 풍성해지고 있다.

현재 기요계는 국민그룹 god와 대세 아이돌 엑소가 음원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12일에는 실력파 가수 휘성과 섹시가수 지나, 만능 엔터테이너 홍진영이 신곡을 공개한다. 치열한 경쟁이 기요계에 몰아치고 있다.

휘성은 군 전역 후 처음 발표하는 앨범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이번 앨범은 지난 2011년 10월 발매한 '놈들이 온다' 이후 2년 7개월 만의 신보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나이트 앤드 데이'를 포함해 '네 옆에 누워', '돈 벌어야 돼', '너라는 명작', '모르고 싶다' 등 총 7곡이 수록됐다.

휘성은 이번 앨범의 프로듀싱은 물론이고 전곡의 작사를 도맡았다. 작곡가 김도훈 이상호 문지영 등 많은 동료들도 힘을 보탰다.

솔로 가수 지나는 신곡 '예쁜 속옷'으로 컴백한다. 지나는 8일 오전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신곡 '예쁜 속옷'의 티저 영상을 선보였다. 티저 영상 속 지나는 심금한 빔 내음을 풍기며 매력을 발산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예쁜 속옷'은 여자가 사랑에 빠졌을 때의 상황을 섬세하게 표현한 가사가 돋보이는 댄스곡이다.

가요계와 예능을 넘나들며 종횡무진 활약 중인 홍진영은 SBS 주말극 '가분좋은 날' OST에 참여했다. 타이틀곡 '내 나이가 어때서'는 트로트 스타 오승근의 인기곡을 리메이크 한 것으로 원곡의 신나는 트위스트 리듬에 홍진영 스타일이 더해졌다.

이번 OST는 홍진영의 상반된 두 가지 매력을 함께 느낄 수 있다. 특유의 애교만점 창법이 느러나는 경쾌한 스타일의 록 버전과 애절한 감성이 묻어나는 발라드 버전이 함께 공개된다.

/장서윤 기자 yoon@metroseoul.co.kr

박유천·카라 시작은 팬과…

솔로행사·3인조 무대 함께

톱 한류스타들이 팬들과 의미 있는 첫 번째 자리를 마련한다.

JYJ의 박유천(왼쪽 사진)은 다음 달 4일 자신의 스물아홉 번째 생일을 팬들과 보내기로 했다. 일산 킨텍스에서 총 6000석 규모의 생일 기념 팬미팅을 개최한다. 박유천이 솔로로 국내에서 팬들과 공식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올해 생일은 특별히 그동안 아낌없는 사랑과 정원을 보내준 팬들과 함께 생일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5인조에서 4인조로 팀을 재편한 카라(오른쪽)는 첫발을 팬들과 함께 내딛는다.

박규리 한승연·구하라는 24일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2014 카밀리아데이 팬미팅을 열고 3인조 카라의 출발을 알린다. '카밀리아데이'는 카라 멤버들이 팬클럽 카밀리아를 위해 2011년 지정한 기념일로 해마다 크고 작은 행사들이 열린 바 있다. 올해는 한국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 일본 부도칸에서도 팬미팅이 열린다.

서울 팬미팅의 티켓 가격은 5000원으로 저소득 청소년 돕기 성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장소희 기자

'무한도전' 토요 예능 1위 탈환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토요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 1위를 탈환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10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선택 2014' 두 번째 편 시청률은 전국과 수도권에서 모두 지난 377회보다 상승했다. 전국 기준 시청률 11.8%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주 방송분 10.9%에 비해 0.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동 시간대는 물론 토요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최근 저조한 시청률로 어려움을 겪어온 '무한도전'으로서는 의미있는 기록이다.

이날 '무한도전'에는 향후 10년을 이끌어 갈 새로운 리더를 선발하는 '선택 2014' 특집 두 번째 이야기가 전해졌다.

한편 동시간대에 방송된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은 9.1%를 기록했다. KBS2는 예능 드라마 등 재방송으로 편성을 대체했다. /장성용 기자

결혼 미루는 자녀 때문에…올해도 '축의금 품앗이'만 하다 끝?

주변 결혼식은 늘어나고, 결혼 적령기 자녀는 느긋하고 속 타는 부모들 결혼 상담 부쩍늘어

서울 서초구에 거주 중인 김상중 씨(60세)는 요즘 걱정이 많다. 부쩍 많아진 결혼식에 축의금 지출은 늘어가는데 정작 딸의 결혼 소식은 잠잠하기 때문. "3년 새 주변에 결혼식이 크게 늘었어요. 정작 우리 애는 느긋하고 걱정이 크죠."

정선화씨(58세·강남구)도 아들의 혼사에 마음이 쓰인다고 말한다. "싹싹한 며느리와 예쁜 손주 볼 친구들 볼 때마다 참 부럽죠. 올해도 봉투만 보내다가 지나버리면 어쩌나 싶고…"

여전히 미혼으로 남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소위 '축의금 품앗이' 문화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주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초혼 연령이 높아 지고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올해도 축의금만 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가연결혼정보(주)의 개비숙 이사는 최근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결혼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자녀분들이 어서 짝을 찾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된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들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 며 결혼을 미루는 자녀를 위한 해결책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다.

박경원씨(65세·송파구)는 작년 초 딸(28세)의 결혼 상담을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아버지 만큼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딸은 결혼정보회사에 적극적이 었다고 한다. 그 결과 딸이 원하는 이성상과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윗감을 만나 지난 2월 결혼식을 올렸다.

박씨는 "딸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나.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았으면 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던 이유도, 원하는 사윗감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였다.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위를 뒀다"며 웃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의 특별한 한정혜택!

10% 할인, 12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 선보여…

공기업 연구원 정성호씨(31세)는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누구의 권유나 추천도 아닌 본인의 결정이었다. "바쁘게 살다보니 해가 바뀌고 계절도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안에 저도 제 짝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만날 순 없고, 제가 원하는 상대를 찾고 싶었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미혼남녀들이 늘고 있다.

행복한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결혼정보회사 찾는 법 따로 있다

이왕이면 하루빨리 짝을 찾고 싶은 마음에 결혼정보회사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조급한 맘에서 아무 회사나 선택 하는 것은 금물.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자.

(결혼정보회사 가입 시 확인할 것)

공정위 표준약관 100% 준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준수 여부
회사의 규모와 공신력
서비스 품질, 사후 관리, 전문성 갖춘 인력, 시설 등
철저한 회원 신원인증
미혼, 학력, 재직 등 엄격한 회원 신원인증 절차
개인정보 보안 관리
회원 개인정보에 철저한 보안 및 관리
회원 매칭 시스템
전문적인 커플·대칭매니저에 의한 세심한 관리

결혼정보분야 3년 연속 1위 기업

꾸준히 신뢰받는 이유는

가연은 결혼정보분야에서 3년 연속 1위(2011,2012,2013랭키닷컴 기준)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및 대한민국 중소 중견기업 혁신대상 3년 연속 수상,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4 국가브랜드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입증했다. 이렇듯 높은 고객만족도를 자랑하게 된 중심에는 가연이 개발한 독자적인 매칭서비스가 있다. 1:1 위주의 매칭에 의존했던 업계에서 꾸준히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연만의 매칭시스템인 GMS(Gayeon Matching System)를 기반으로 커플/매칭매니저 2명이 1명의 회원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성혼 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ISO9001, INNOBIZ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그 우수함을 인정받기도 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080-586-5000)

"행복한 결혼을 위한 기준은 다 다르니까, 등급은 필요 없죠"

결혼정보회사는 직업이나 경제적 능력만으로 평가 하고, '등급'을 매길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그러나 가연결혼정보(주) 조인상 커플매니저는 오직 인연을 찾아 드릴 뿐, 등급은 없다고 말한다.

◇ 결혼정보회사에 등급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등급을 나눌 거라는 선입관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가연에서는 등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급 개념 자체가 불필요해요.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배우자 상대를 찾아 드릴 뿐, 등급에 따라 매칭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 등급은 없더라도 조건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나요?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결혼정보회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배우자에 대해 바라는 조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상담 시 다양한 이상형 조건들을 수집하죠. 어떤 분은 배우자가 공무원이길 바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같은 종교'이길 바랄 수도 있는 것처럼 누구나 바라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찾아드리기 위해 배우자 조건에 대한 상담은 필수 과정인 거죠.

가연결혼정보(주) 조인상 팀장

◇ 결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는 일인 만큼 의지를 갖고 노력하셔야 하죠. 결혼정보회사의 성혼 프로그램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험해본 바로는 적극적인 분들일수록 매칭 성공률도 높더라고요. 기회는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무료상담전화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

명품 가수 드라마 열기 이끈다

바비킴·이문세·윤건 OST 참여

SBS 월화극 '닥터 이방인' OST

KBS2 주말극 '참 좋은 시절' OST

SBS 주말극 '기분 좋은 날' OST

SBS 주말극 '엔젤아이즈' OST

명품 목소리를 지닌 가수들의 드라마 OST 참여가 두드러진다. 올 초 tvN 금토극 '응답하라 1994'와 김수현·전지현 주연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중심으로 일었던 OST 열풍을 재현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바비킴은 SBS 월화극 '닥터 이방인' OST인 '이방인'을 불렀다. '이방인'은 박훈(이종석)과 송재희(진세연)의 운명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두 사람의 절절한 이별과 애틋한 재회가 바비킴의 섬세한 음색과 어우러져 극의 몰입도를 높인다.

국민 가수 이문세는 KBS2 주말극 '참 좋은 시절'과 똑같은 제목의 수록곡을 공개했다. 노래 '참 좋은 시절'은 이문세 특유의 목소리로 따뜻한 느낌을 전한다. 또 '두 눈을 감아요. 그대가 보여요. 꿈처럼 반짝이던 나와 그 시절 그대가 있죠'라는 후렴구는 한 동네에서 오랜 시간 이웃으로 살아온 작품 속 등장 인물들이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의 사랑을 찾아가는 드라마 주제의식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어 OST의 완성도를 높였다.

윤건은 SBS 주말극 '엔젤 아이즈'의 OST '사랑해도 너무나'를 선보였다. 특히 노래는 드라마 장면으로 구성된 뮤직비디오와 함께 공개돼 시청자와 청취자 모두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 '사랑해도 너무나 사랑했던 그대를 보낼 수 없어 가슴 한 편에 나는 묻어둔다'라는 가사를 통해 첫사랑 커플 이상윤과 구혜선의 애틋함을 느끼게 한다.

트로트 여신 홍진영은 SBS 주말극 '기분 좋은 날' OST 록과 발라드 버전을 오는 12일 정식 발매한다. 타이틀 곡인 '내 나이가 어때서'는 이미 드라마 현담을 통해 공개됐다. 특히 12일에는 홍진영의 콧소리 창법이 도드라지는 경쾌한 록 버전과 애절한 감성이 묻어나는 발라드 버전이 함께 공개될 예정이어서 그의 상반된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효진기자

男주인공 순애보 여심 홀린다

'남북 초월' 이종석…'첫사랑 아이콘' 이상윤 매력 발산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들의 순애보가 눈에 띈다. 배우 이종석과 이상윤은 사랑을 위해 목숨과 야망까지 버릴 수 있는 역할을 맡아 여심을 흔들고 있다.

이종석은 SBS 월화극 '닥터 이방인'에서 남북을 초월한 사랑을 예고했다.

여심 시청자를 행복하게 한 명대사는 1회부터 나왔다. 박훈(이종석)은 연인 송재희(진세연)에게 "심장 뛰는 거 느껴져? 사람마다 다 다르대"라며 가슴 포옹을 했고 "들어봐 근데 너랑 나랑은 똑같지?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거야"라고 말해 보는 이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그러나 박훈은 송재희가 정치적으로 숙청된 부모와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면서 연인과 생이별을 했다. 이후 만수무강 연구소의 최고 의사로 성장한 그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반신불수가 된 채 끌려온 송재희와 재회했고 두 사람은 부다페스트로 도망가 망명을 시도한다.

운명적 사랑은 잠시란 명장면은 부다페스트 다리 위에서 그려졌다. 박훈은 북한 요원들과의 추격전 도중 강물에 떨어질 위기에 처한 송재희의 팔을 붙잡았고 두 사람의 맞잡은 팔을 타고 흐르는 한 줄기의 피가 사선을 사로잡은 것이다.

'닥터 이방인' 2회는 홀로 남한에 온 박훈이 송재희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증거 영상을 보게 되면서 막을 내려 그의 순애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윤은 SBS 주말극 '엔젤아이즈'를 통해 첫사랑의 아이콘으로 등극했다. 전작들에선 엄친아 착한 열정 오빠의 이미지가 강했지만 '엔젤아이즈'에선 남자 그 자체의 매력을 발산 중이다.

작품에서 이상윤이 맡은 박동주는 헌신적인 사랑을 한다. 섬세한 손기술을 가진 유능한 의사지만 첫사랑과 함께 있기 위해 구급대 소속 의사로 자원하는 열의까지 보인다.

첫사랑 윤수완(구혜선)을 위해 과거에 버릇가를 자처할 정도다. 윤수완과 재회하기 위해 외과의사 딜런 박으로 한국에 돌아왔지만 그에게 연인이 있다는 걸 알고는 다시 미국으로 떠난다.

그러나 윤수완이 딜런 박의 정체를 알고 괴로워하자 다시 한국에 돌아와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사랑을 시작했고 현재 이상윤은 '남자 친구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 달달스런 대사와 애교로 설레게 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 윤수완의 현재 연인이자 박동주와 동료 의사인 강지은(김지석)과의 삼각 관계에선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박력 있는 남자의 면모도 과시하고 있다.

/전효진기자 jeonhj@metroseoul.co.kr

SBS 월화극 '닥터 이방인' 이종석·진세연

SBS 주말극 '엔젤아이즈' 이상윤·구혜선

아시아 '엑소앓이' 시작

리얼 방송 최고 시청률 중국 음악 프로그램 1위

대세 아이돌 엑소가 국내를 넘어 아시아 전역을 중독시키고 있다.

엑소가 나오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지난 9일 방송된 엠넷 리얼리티 예능프로그램 '뜨거운 순간 엑소'가 10대 여성 시청층 최고시청률을 기록했다.

이 방송은 엑소의 리얼한 무대 밖 모습을 담은 것으로 1화는 평균 시청률 1.2%, 최고시청률 1.5%를 기록했다. 10대 여성 시청층에서는 평균 3.5%, 최고 4.1%(TNmS 유료플랫폼 기준)까지 오르며 케이블·위성·IPTV 통합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가장 높은 순간 시청률을 기록한 장면은 엑소가 컴백쇼에서 신곡 '중독' 무대를 공개한 순간이다. 또 늘 카메라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타오, 언제 어디서든 자동으로 인사를 하는 레이 등 무대 위에서 내뿜는 강렬함과는 다른 멤버들의 모습이 모두 공개됐다.

엑소의 인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엑소의 중국 활동 유닛 엑소-M이 중국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에 올랐다. 엑소-M은 지난 10일 중국 전역에 생방송된 CCTV '글로벌 중문음악 방심방'에서 신곡 '중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엑소-M은 압도적인 투표수로 1위에 올라 중국에서 누리는 뜨거운 인기를 증명했다. '글로벌 중문음악 방심방'은 지난 3월 첫 방송된 중국 최초 순위제 음악프로그램이다.

/김성옥기자 yam@

해외 구금 채은정 무사 귀국

비자법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 이민국에 구금됐던 방송인 채은정(사진)이 무사히 귀국했다.

채은정의 소속사 다음531 측은 "채은정과 일행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9일 오후 인도네시아 이민국에서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10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다음531 측은 "이번 사건은 행사 주최 측의 실수로 벌어진 해프닝이며 채은정은 조사를 통해 비자법 위반에 대한 혐의를 깨끗이 씻어냈다"며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 전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채은정은 지난 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 화장품 신상품 출시 행사에서 공연비자가 아닌 일반비자로 외국에 행사를 마친 후 인도네시아 이민국에 체포 구금됐다.

/김성옥기자

곪아 터진 '안전 불감증' 도려내야

뉴스룸에서
김 민 준
<정치 사회부 부장>

최근 연속 나지고 있는 '인재' 사고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곪을 대로 곪았는지 무서울 지경이다.

10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복판인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노후 건물을 철거하던 중 이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엄청난 굉음에 시민들은 깜짝 놀랐고 사고 여파로 가스 배관이 파손되면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인근 1876 가구에 2시간가량 가스 공급이 중단됐다.

조사 결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철거업체가 가스 배관을 차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철거업체는 9일 건물에 가스를 공급하는 지하 배관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가스 공급업체는 12일 차단하겠다고 했지만 철거업체는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

문제는 국내 도시가스사업법이나 건축사업법 등에 증·개축 공사를 할 때 가스공급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가스 밸브가 열린 채로 건물을 부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셈이다.

지난 2월 터진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는 수백명이 들어가는 체육관을 얇은 철판에 스티로폼을 덧댄 샌드위치 패널로 허술하게 지은 것이 원인이다. 체육관 소유주인 코오롱그룹은 사고 당시 폭설로 쏟아진 200t 무게의 눈이 덮인 체육관에 560명을 입장시킨 배짱 영업을 했다. 결국 체육관이 붕괴되면서 10명의 소중한 대학 새내기들을 잃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는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세기적인 인재로 귀결된다. 여객선 회사는 안전은 무시한 채 화물 과적과 부적절한 구조 변경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했다.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 다수는 긴박한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도 내리지 않은 채 먼저 탈출했다. 정부는 우왕좌왕 실종자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2일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는 서울메트로 직원이 사고 14시간 전 신호 오류를 알고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곪은 곳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메스를 대 상처를 도려내야 한다. 흉터가 남겠지만 새 살을 돋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 밖에 없다. 정부 부처는 물론 국민 모두가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새 국무총리 인선은 국민추대형식으로

정론직설
유 병 철
<언론인>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최대 시련을 겪고 있으나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젊은 생명을 잃은 세월호가 침몰된 지 한 달이 다 되어도 유가족은 물론 국민이 패닉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지 10여일이 지나 이제는 민생안정과 함께 개각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거론되는 새 국무총리 후보의 조건은 세월호 참사를 수습함은 물론 앞으로 개혁을 선장할 인물로 압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물을 찾기가 쉬지 않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 요구되는 자질이나 조건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도 비정상의 정상화 를 개혁의 화두로 삼아온 박 대통령은 이제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부조리와 적폐를 바로 잡고 올바른 정의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개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있다. 이러한 점을 뒷받침해 줘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부신뢰도가 바닥수준이다.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14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를 발표한 결과 정부신뢰도가 36개 나라 가운데 29위이다. 전체 평균 39%에도 훨씬 낮은 23%이다.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역시 25위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이러한 판에 세월호 참사를 빚어 이제는 더욱 '부끄러운 나라'가 되어 버렸다.

따라서 이번 총리 인선과 개각은 국가개조의 차원에서 정부의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침체된 국민정서를 되살릴 수 있을 만큼 신선해야 한다. 바로 국민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기폭제가 돼야한다. 그러자면 정파나 지역을 떠나 국민여론을 수렴해 최선의 인선을 해야 한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될 도덕성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복수의 인물을 압축해 여당과 사전 조율도 필요하다. 다시 말해 여야 합의로 국민추대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과 같은 국가재난을 겪고도 여야 사이에 정쟁을 일삼아 갈등을 재현한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또한 대통령은 총리가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여해야 정부의 기능이 살아난다.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받아쓰기 해바라기 관료조직'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포토프리즘

희생자 추모 침묵 시위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글귀가 적힌 종이를 들고 침묵시위하고 있다. 소속도 없이 개개인이 뜻을 모아 나왔다는 시민들은 희생자들을 조용히 추모하는 뜻으로 나왔을 뿐 선동발표와 같은 행동은 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손진영기자 son@

이동사 알뜰폰 진출…미래부의 고민

기자수첩
이 재 형
<경제산업부 기자>

"선례가 있으니 막기도 못하고, 정책 취지상 허가하지도 못하고…"

대기업의 알뜰폰(MVNO) 시장 진출을 둘러싼 미래창조과학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최근 LG유플러스가 자회사인 미디어로그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미디어로그는 지난달 서울전파관리소에 알뜰폰 사업신청서를 내고 등록절차를 밟고 있다.

이미 SK텔링크로 알뜰폰에 진출한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마저 알뜰폰 시장 진출 움직임을 보이자 KT 역시 재검토하는 모습이다. 앞서 KT는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려다 시민단체의 반대로 진출선언을 미룬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선 "알뜰폰은 이동3사의 독과점과 폭리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역"이라며 "이 같은 취지 하에 보다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통3사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근본적인 의미와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알뜰폰 업체들도 우려하는 모습이다.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중소 알뜰폰 업체들은 이들과 어떻게 맞설지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

결국 최종 선택은 미래부에 달려있다. 다만 통신업계를 책임지는 부처로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 앞선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하며 당장 눈앞의 이득이 아닌 통신업계 미래를 내다보는 선택이 필요할 때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인문의 선택
김 민 웅
<성공회대 교수>

19세기 런던과 파리 경시청은 당대 최고의 수사력을 자랑하고 있었다. 보통사람들의 눈에는 스치기 쉬운 것들을 포착해서, 범행당시의 현장을 입체적으로 되살리는 거다.

탐정 셜록 홈즈와 괴도(怪盜)신사 아르센 뤼팽은 바로 이 공식기구의 권위를 무력화하는 인물들이다. 홈즈는 런던 경시청이 쩔쩔매는 사건을 풀어내고, 뤼팽은 파리 경시청의 추적을 유유히 따돌린다. 이들은 수사당국의 무능을 마음껏 비웃으면서 사건의 실마리를 독자들에게 슬쩍슬쩍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아마 이랬을 거야"라는 가설은 수없이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추리소설을 읽는 재미다.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에서는 외딴 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러는 중에 이들이 죽을 때 마다 열 개의 인디언 인형이 하나씩 사라진다. 알고 보니 이 사건은 공식수사기관이 잡지 못한 살인자들을 "누군가"가 응징한 결과였다.

세월호 참사는 현재진행중이다. 국면은 진상규명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의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선장은 주변에 누구라도 있으면 달려오는 전 방위 구조요청 16번 채널은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 게다가 가까운 진도에 먼저 알려야지 어째서 구조선 도착에 적어도 서너 시간은 걸릴 제주 쪽과 먼저 통신했을까? 이건 어떤 변명을 해도, 선박 침몰 시 자기들이 먼저 구조되기 위해서라도 도저히 취할 수 없는 행동이다.

어디 그뿐인가? 침몰 시 함께 빨려 들어갈 수 있어서 구명보트만 보냈다고 한 해경 구조선은, 유독 선장과 승무원들이 기다리고 있던 선수에는 직접 다가가 이들을 구해냈다. 해경은 이들이 일반 승객들인 줄 알았다고 했지만, 조타실은 선수에 있고, 일반승객에겐 접근통제구역이다. 그러기에 구조에 나선 민간 어선들은 모두 선미 쪽으로 갔는데? 해경이 이걸 모를 턱이 없을 테니, 속히 그리로 가서 다른 승객구출에 나서는 게 당연하지 않았던가? 해경의 임무가 애초에 선수에만 집중되어 있도록 한 것은 아니었을 텐데, 왜 그런 걸까? 설명의 아귀가 어긋난다.

가장 이상한 것 가운데 하나는 선장을 왜 수사관 집에서 재웠을까? 피의자의 신변보호를 위해서라는데, 이러는 경우가 언제 있었던가? 그 아파트의 감시 TV는 왜 두 시간 정도 분량이 사라졌을까? 누가 왔다갔나? 무엇 때문에? 셜록 홈즈가 다시 돌아와야 할 판인가 보다.

박지성이 11일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성, QPR 성적에 거취 달려

1부 승격하면 복귀

박지성(33)이 임대소속팀인 퀸스파크 레인저스(QPR)의 승격 여부에 따라 올 시즌 후 거취를 결정할 전망이다.

박지성은 11일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과 만나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 정 명예회장은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박지성이 QPR의 플레이오프 결과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 플레이오프에서 잘 되면 QPR로 돌아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올 시즌 챔피언십에서 정규리그 4위를 기록한 QPR은 3~6위 팀이 한 장의 프리미어리그 승격 티켓을 놓고 다투는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있다.

QPR에서 2015년 6월까지 뛰기로 계약돼 있는 박지성은 입국 전 토니 페르난데스 QPR 구단주와 만나 향후 거취를 놓고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QPR이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한다면 박지성이 복귀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QPR은 10일 위건과의 4강 1차전에서 0-0으로 비겼고 13일 2차전을 치른다. 박지성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거취를 밝힐 예정이다. /정소영기자 [illegible]

'손세이셔널' 손흥민 월드클래스

브라질월드컵 빛낼 영건 톱22 이름
분데스리가 2시즌 연속 두자리 골

손흥민이 10일 리그 최종전에서 승리한 뒤 유니폼을 벗은 채 팬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소속팀 레버쿠젠을 유럽 챔피언스리그로 이끈 손흥민(22)이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가 선정한 브라질월드컵 스타 22인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11일 게재한 '22세 이하 주요 선수 22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차로 11명의 명단을 우선 공개했다. 손흥민은 네이마르(22·브라질), 조엘 캠벨(22·코스타리카), 마테오 코바치치(20·크로아티아)에 이어 네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신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이 매체는 손흥민을 "한국의 키맨"이라고 평가하며 "레버쿠젠은 안드레 쉬를레를 첼시에 내준 뒤 그 공백을 손흥민으로 메웠고 손흥민은 팀을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레버쿠젠 왼쪽 측면 공격을 이끌며 팀내 두 번째 득점 랭킹에 올랐고 같은 시기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이 대표팀에서 터뜨린 6골 가운데 5골은 지난해 3월 이후 쏟아졌고 한국팀의 간판 공격수가 됐다"면서 "빠르고 기술적인 대한민국은 결코 과소평가돼선 안 된다. 특히 손흥민을 통해 골을 넣을 수 있는 진정한 무기를 갖게 됐다"고 손흥민과 한국팀을 높이 평가했다.

손흥민은 10일 베르더 브레멘과의 리그 최종전에서 결승골을 넣으며 팀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이 승리로 레버쿠젠은 4위를 확정지으며 다음 시즌에도 유럽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손흥민 개인으로선 리그 10호골이자 시즌 12호골을 올리면서, 차범근 이후 유럽에서 뛰는 한국인 선수로는 28년만 만에 두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릿수 득점 대기록을 세웠다. /장상은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브라운, 실바 꺾고 30번째 V

맷 브라운(33·미국·사진)이 UFC파이트 나이트(UFN) 40에서 에릭 실바(29·브라질)를 꺾고 커리어 30번째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맷 브라운은 11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US 뱅크 아레나에서 벌어진 UFN40 메인이벤트 웰터급 매치에서 에릭 실바를 꺾었다. 이로써 현재 웰터급 랭킹 7위 브라운은 지난 2012년 2월 UFC 143 크리스 코프 전부터 시작된 자신의 연승숫자를 '7'로 늘렸다.

또 이번 승리로 그동안 여섯 번의 승리가 상대적으로 약한 상대들과의 대결에서 거둔 것이었다는 비판에서도 조금은 자유롭게 됐다.

이날 경기는 양 선수의 난타전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초반 실바의 니킥이 브라운의 복부를 강타하면서 경기가 종료되는 듯했다. 하지만 브라운도 실바의 복부 강타 근접에 이어 안면을 강타하는 펀치를 이어갔다.

이후 실바는 1라운드 종료를 앞두고 브라운의 공격에 반격조차 하지 못하며 무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2라운드까지 계속되는 공격에 정신력으로 맞섰다.

그러나 실바의 정신력도 3라운드를 넘기지 못했다. 3라운드 초반 브라운은 실바에게 테이크 다운을 성공시켰다. 이후 일방 공격을 적중시킨 뒤 연이어 펀치를 꽂았다. 결국 심판이 경기를 중지시키는 사태까지 갔다. /정요중기자

프로야구 전적 (11일)

■ 잠실

삼성	000	000	001	1
두산	302	100	20X	8

■ 목동

LG	000	000	100	1
넥센	150	100	01X	8

■ 대전

KIA	302	000	000	5
한화	002	000	000	2

■ 마산

롯데	000	001	000	1
NC	000	040	15X	10

프로배구 전적 (11일)

삼산	3	0	우산

축구 대표팀 /연합뉴스

홍명보호 월드컵 훈련 오늘 시작

축구 국가대표팀이 2014 브라질 월드컵 준비를 위해 12일 경기도 파주 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 소집된다.

대표팀은 이날 소집을 시작으로 30일 전지훈련지인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출국할 때까지 파주에서 훈련을 이어간다. 그 사이에는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튀니지와의 평가전이 예정돼 있다.

23명의 선수 가운데 12일 파주에 모이는 선수는 9명이다. 정성룡(수원), 김승규(울산), 이범영(부산) 등 골키퍼를 비롯해 박주영(왓퍼드), 기성용(선덜랜드), 이청용(볼턴), 이근호(상주), 김신욱, 이용(이상 울산) 등 필드 플레이어 6명이 1차 소집 대상자들이다.

이 중에서 박주영과 기성용은 나란히 부상 뒤에 재활 치료 중인 선수들이다. 나머지 선수 14명은 소속팀 일정에 따라 차례로 입소할 예정이다.

21일까지 기초 몸 만들기를 끝내고 이후 약 1주일간 마지막 국내 담금질을 할 예정인 대표팀은 28일 튀니지와의 평가전에서 월드컵 출정식을 함께 치르고 30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떠난다.

대표팀은 다음달 10일 미국 현지에서 가나와 마지막 평가전을 치른다. 12일 브라질 현지 베이스캠프가 차려진 브라질 포스 두 이구아수에 도착해 18일 러시아와의 1차전을 준비하게 된다. /김성중기자